

한 마음 굳게 세워 밤 낮 잊고
점진할때 번뇌가 끊어지고
생각마저 고요해져 바른 법 배
워 갈때 맑고 밝은 그 마음.
(法句經·불타품 207절)

東大新聞

발행 일	편집 장	인사 장	민 주 조 장	발 행 부 장	정 리 부 장
100-715	100-715	100-715	100-715	100-715	100-715

퍼낸 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제 1090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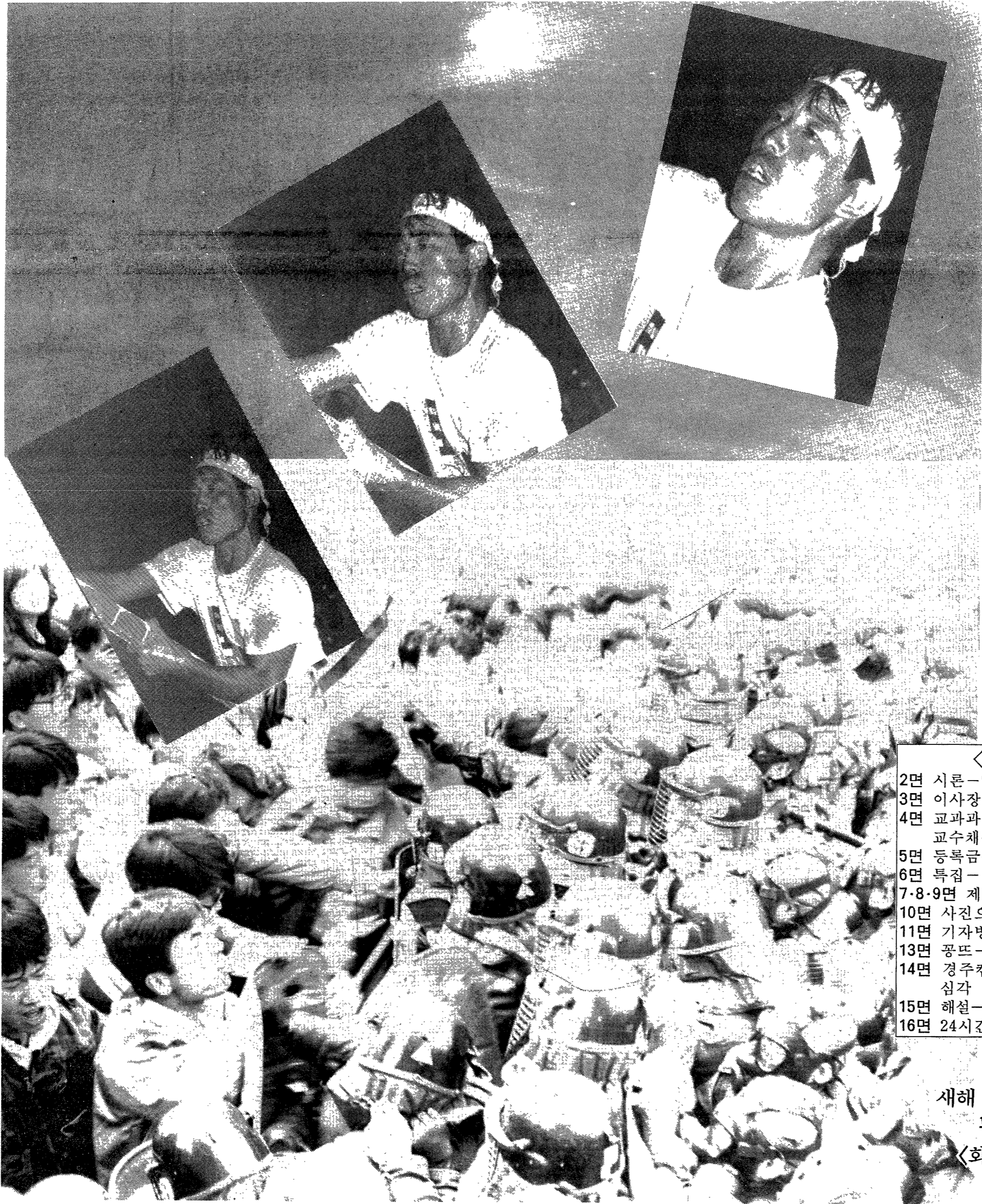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3호우원출(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 1월 1일 (수요일)

【 1 】

온누리 새벽햇살 동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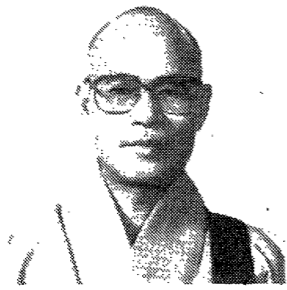
◇지면안내

- 2면 시론-92년 경제위기 타결책
- 3면 이사장·총장 신년사
- 4면 교과과정 개편 방향
교수체용 의미와 교과위의 방향
- 5면 등록금투쟁의 의미와 과제
- 6면 특집-남북관계 전망
- 7·8·9면 제6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 10면 사진으로 본 91년
- 11면 기자방담
- 13면 꿈뜨-알찬 방향을 위하여
- 14면 경주캠퍼스 주변 방세 인상
심각
- 15면 해설-신입생 성적장학금 사태
- 16면 24시간 편의점 실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대신문사
〈화보제작·사진부〉

재단이사장 신년사

壬申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욕을 머금었던 辛未는 또다시 역사의 늪으로 빠져 들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해였습니다. 동서의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한반도에도 서서히 화해의 물결이 스며 들고 있습니다. 격변의 정세속에서 우리 동국대학교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용비의 토대를 이룩했고 자부합니다. 불교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신설 등으로 대학원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습니다. 또 동국대중추·경주캠퍼스의 의과대학부속병원 개원, 기초과학센터, 각종 학교발전의 내실을 다진 해였습니다. 또 남산제모습찾기 등으로 건축예찬을 받았던 본교의 재향군인회관(전)에도 특수화환을 신속할 수 있는 여가를 얻었습니다.



용비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2006년이되면 동국대학교는 개교 1백주년을 맞이

창조적 지성으로 질적 승화를 화합바탕위 '도약의 한해'로

이 모든 일들은 동국인들의 화합을 통해서 이룩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와같은 동국인들의 발전의지를 보다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동국

개됩니다. 민족사학의 정당으로서, 또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한 토대로서 우리는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이 동국인의 발전의지를 뒷받

침하기 위해서, 보다 쾌적한 학교환경조성과 시설 확충·교육기자재 도입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復古의 知性 일수 없습니다. 또 현실을 한탄하는 나약한 자성이어서도 안됩니다. 미래지향적 기상과 드높은 이상을 펴는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질적인 승화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존엄의 당위가 있는 것처럼 동국인들에게도 자아의 위상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훌륭한 대학을 가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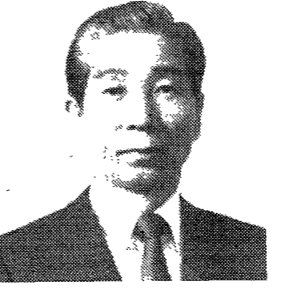
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緣起의 역사에서 보듯 진취적인 의지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응시할 줄 알고 단견보다는 깊은사색이 뒷받침되는 참 '진리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1992년을 동국도약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한 동국인들이 펼쳐진 자성과 용맹정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분들, 동문 및 여러불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

시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안에 더욱 보람찬 정진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오 녹 원학장

1992년 壬申年 새해아침에

총 장 신년사

희망찬 새해에 동국가족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안하고, 바라는 바 소원을 모두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배움과 연구의 터전이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전 동국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학이 안정과 질서속에서 전환의 역사를 이룬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년초의 어려움을 화합과 발전의지로 극복되었습니다. 전주체가 하나되어 더 이상 동국이 제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단합을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동국대학교가 '달바꿈하는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발전의견을 제시할 때 역동적인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대학

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두가 생각하는 곳에 발전은 기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새해에는 대학내에서 개인이거주나 집단이거주의가

완전히 없지않게 기대합니다. 대학은 회사와 달라서 이익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의 공익적 사회입니다. 각 주체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도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각주체의 관심과 공익심을 바탕으로 새해에 전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될 것입니다. 저는 양적인 증대에 계속 힘을 기울이면서도 그 보다 질적인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질적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복지 증진과 연계되어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국학술연구문화센터'(가칭)를 동국관아래(재향군인회관 자리)에 건립하는 일을 본격화하고 경주 '자연과학관'과 '동국관중추'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리 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 새해가 우리 모두의 힘으로 '새동국건설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신중'이 동양에서 일어 나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반복이 될것들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총 장 민 병 천학장

역동적 대학위한 새바람 기대 교육환경-복지등 계속 개선

신년사

신년사

신년사

신년사

학력고사 고득점자 대폭늘어

전기입시 합격자 3백점 이상 71명

92학년도 전기분할모집 신입생 총 3천3백60명의 합격자명단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발표되었다. (관련기사 15면) 이번 입시는 시험문제가 예상보다 쉬워 지난해에 비해 고득점자가 대폭 늘어났다. 기원상을 보인 가운데 후기분할모집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전기수석합격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주캠퍼스 한의과대 한의예과에 지원한 이수진(마산 제일여고 91년도졸, 총4백85점.7점 만점에 4백55점.7점, 학력고사 3백12점)양이 차지했다. 평균 4.57대의 입시경쟁률은 보인 이번 학력고사는 지난달 17일 각 계열별 고사장에서의 일제히 치루졌는데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학력고사 평균점수가 예년의 수준보다 크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를 양캠퍼스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 25.52점, 경주캠퍼스 24.16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농과대 입학

'동국인의 밤' 성료 문화대상에 황수영 전총장

충동창회주최 '제20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달 19일 오후 6시30분 정철 총동창회장, 오녹원 재단이사장, 민병천총장 등 내외인사와 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철(정치·52쪽)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인 모두의 동태발전의지가 없다면 본교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이제 동문, 재단, 학교당국, 학생이 하나되어 모교발전에 힘을 때"라고 강조했다. 또 추사에서 오녹원 이사장

과의 경우, 무려 평균점수가 42.72점이나 올랐다. 또한 평균점수 최고학과는 서울캠퍼스 인문계열 경제대 정보관리학과(2백80.84점), 자연계열 공과대 컴퓨터공학과(2백80.11점) 순이며, 경주캠퍼스는 자연계열 한의과대 한의예과가 2백99.33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격자발표결과 특이한 점으로 전기대 학력고사가 사 상유례없이 쉽게 출제돼 중상 위권대학에 고득점자세가 빚어져 본교의 경우, 3백점 이상 71명, 2백90점 이상 1백10명으로 지난해 14명에 비해 크게 증가

현대불교신서 6권 간행 '물따라 구름따라' 등 문학류

역경원(원장=김성우)에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30일까지 '현대불교신서' 66권부터 71권까지 6권을 간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불교신서는 이중찬(국문학)교수가 옛 선사들의 시조를 해설한 '물따라 구름따라' 상·중·하(66권부터 68권), 김진학(국문학)교수가 불교문학에 관한 '법부의 문학'과 불교주본(69권)湯田(일본 철학)가 저술하고 원오민(철학·경상대)교수가 번역한 '인도철학의 산개' 상·하(70권부터 71권) 등이다. 신년 하례 및 서무식 오는 3일 동국관서 92학년도 '신년 하례 및 서무식'이 오는 3일 오전 11시 민병천 총장을 비롯한 교수,

신규교수초빙 1백38명 지원 학생교과위 학생참여 보장 요구

92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접수가 지난달 12일 마감돼 경주의학계열을 제외한 16개학과 16명 모집에 총 1백6명(서울캠퍼스 77명, 경주캠퍼스 29명)이 지원. 1월초 구체적인 학과별 서류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또 경주 의학계열은 한의예과 2명, 의예과 30명이 접수를 마쳐 총32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중앙교과과정학생 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해 대학과교과위와 4차례 연석회의를 갖고 채용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방법을 논의중에 있다. 특히 학기중채용이 아닌 방

금년 학사일정 확정 오는 3월2일 입학식

92학년도 학사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교무처가 발표한 학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2월25일 91학년도 학위 수여식, 3월2일 입학식, 3월9일 개강, 3월10일부터 12일까지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5월8일 개교 86주년 기념일, 6월1일부터 3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 6월24일부터 8월19일까지 하계방학, 8월10일부터 21일까지 2학기 등록, 8월20일 개강,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11월1일부터 18일까지 9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2월12일부터 93년 2월28일까지 동계방학, 93년 2월22일부터 27일까지 등록, 93년 2월25일 92학년도 학위 수여식등으로 되어있다.

집착(執着)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뜻을 세울 때, 그에 앞서서 마음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진실된 마음은 본래 공한 것이어서 새로 생겨나거나 다 시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 문이다. 모든 것은 본래 본성이 없는 것이 본성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상한 것은 벌써 집착심이 일어난 까닭이다.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만 버려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출렁이는 나무토막에 비유하고 있다. 즉 어떤 한 나무가 큰 강물을 따

본 사 사 령

시 브리수(다량권2층)에서 '제5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92년도 회장단 선출과 동문회와 사외에 기여한 동문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동문상'시상식이 있었으며, 김형민(풀라80) 동문이 수상했다. ◇임 기자 ▲박기영(경상대 정보) ▲조홍수(이성대 미술) (이상 12월28일자) ◇임 수습기자 ▲김미영(농과대 농생1) ▲박진경(인문대 국문) ▲김인우(상경대 정보) ▲안은우(상경대 야간경영1) (이상 12월22일자)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땅에 새역사를 창조하라"

동국대학교

주소: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대표 (02)260-3114
교무과 (02)260-3131~2
야간 (02)260-3556

199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후기분)

1.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학 과	모집인원
법 과 대 학	법 학 과	40
	정 치 외 교 학 과	20
	행 정 학 과	20
	경 찰 행 정 학 과	20
	사 회 학 과	20
	경 상 대 학	경 제 학 과
공 과 대 학	무 역 학 과	25
	경 영 학 과	40
	회 계 학 과	30
	정 보 관 리 학 과	20
	컴 퓨 터 공 학 과	30
	이 부 대 학	전 기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30
건 축 공 학 과		20
산 업 공 학 과		50
정 제 학 과 (야)		20
무 역 학 과 (야)		25
이 부 대 학	경 영 학 과 (야)	25
	회 계 학 과 (야)	25

2. 원서교부

① 일 시: 1991. 12. 30(월) - 1992. 1. 7(화)

② 장 소: 서울 및 경주캠퍼스 수위실
종로서적, 동화서적, 교민문고, 서울문고, 을지서적, 한가람문고, 세종문고, 영등포문고, 부산동보서적.

3. 원서접수

① 일 시: 1992. 1. 3(금) - 1. 7(화) 오후 5시까지

② 장 소: 서울캠퍼스 체육관

* '92후기신입생 장학안내는 변경되었음.

◇현행 교과과정의 문제와 개편방향

재정지원 없이 전면적 교과개편 불가능

‘과목이 들을 만하게 없다’, ‘다른 시간과 중복이 되어있다’,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상이하다’, ‘교과내용이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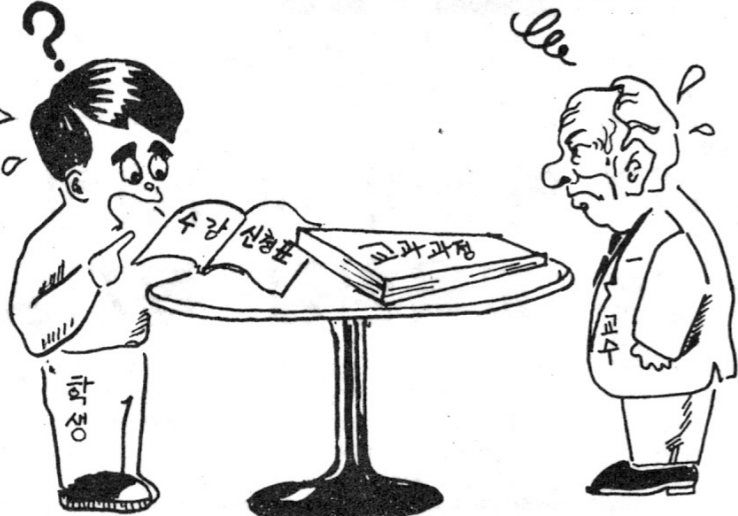
수강신청때 강의시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들의 대학이 과연 연구하는 대학, 학문을 전수하고 사회봉사하는 대학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현재의 대학교육은 전인적 인간으로서 자기의 실현과 공동체적 생활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획일화를 통한 상충적이고 체제유지적 기능인물을 양성하고 지베이테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역할에 부응하는 요소는 교수자, 교육내용, 교육행위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교육내용(전공, 교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중의 하나이다.

교과과정 개편방향

각 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4년과



◇올해 전면적인 교과개편에 앞서 과 교수-학생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이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정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양의 경우 우리학교는 총51과목(142학점)인데 반해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경우 각각 114과목(209학점), 118과목(313학점)으로

교과위에서 담보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개편에 필요한 기초조사에서부터 심도있는 연구작업까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따르는 교수충원과 강의공간확보, 과밀수업해소 등이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요즘을 각대학에서는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 등록금 투쟁을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거래하는 듯한 돈 맛론 싸움기위한 행위로 비치고 있다. 올바른 등록금 투쟁은 과정을 통하여 학원적 성원들이 학교발전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전입금 몇푼을 확보하여 복지요구 몇몇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학원자주화투쟁의 관점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투쟁이 되어야 한다.

많은 등록금을 내며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정당한 학습권의 발현이다. 앞으로 4년동안 실시될 교과과정의 개편작업에는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에 조응하는 과목개설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장 정 현 (사법대 교육학과)

현행 교과과정의 문제점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교과과정(전공, 교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교과과정의 경우에는 학문 전체를 통한 일반적인 이해에 목적을 두어 전인적인 인간형성으로서

수련을 쌓아가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적이고 창조적인 인간형성보다는 교육은 하나의 지베이테올로기 재생산 도구로써 파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가치가 제시되되다 미국중심의 이론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하며 그들의 논리와 치베우조에 맞게 교과내용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보다는 개설강좌가 적거나 시간의 중복 등으로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전공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자기학문의 체계에 맞게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과들의 교과과정이 십년이 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강의되고 있으며 교과과정 개편의 의미가 단단히 몇몇 강좌의 증설, 폐강 또는 이수과목 변경(선택에서 필수, 혹은 필수에서 선택) 등의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교과내용이 교수의 특성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교과명과 교과내용의 불일치 역시도 교과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는 교수자의 전공분야와 담당하는 강좌의 불일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자 수의 태부족으로 인한 법정시간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공분야 이외의 강좌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문제라 하겠다. 현재 각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강좌부족 등으로 선택 어려워 '시대를 앞서는 내용' 마련 시급

다 1년씩 전체 교과과정개편의 시기를 정하여 전체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실시하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올해 92년도 개편을 통하여 93년도부터 반영하게 되어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몇몇 강좌의 폐강이나 전공의 선택 변경이 아닌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올해 교과과정개편(전공, 교양)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자.

먼저 교과개편은 지베이테올로기와 정권에 순응적인 노예교육을 거부하고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문탐구와 현실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중심의 사대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당면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적, 민주지향적 학문을 수용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협소하고 편향된 교과과정에 급변하는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적 학문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과목의 다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역시 국책과목 폐지이후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로써 몇몇 강좌의 증설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교과개편이 아닌 몇강좌만을 증설하는 피상적인 형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교과과정개편뿐만 아니라 강사 추천권이나 강의평가제도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만 진정한 의미의 교과개편을 통한 진보적 학문수용이라 할 수 있다. 타대학과 비교해봐도 우리의 교과

의 배가 넘는 강좌의 부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양의 경우 우리는 1:2학기 동일개설로 선택의 폭이 좁은 반면 몇몇 타대학의 경우는 1:2학기 교차개설로 인하여 같은 비용으로 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통일운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타대학의 경우 통일에 관한 강좌와 북한사회의 이해 등에 관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학교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강좌가 단 1강좌도 존재하지 않아 교과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공과목에 있어서도 타대학에 비해 강좌수가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88년 학원자주화투쟁 당시 학과당 전공강좌 3강좌를 증설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 전공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이다.

진보적 학문수용에 노력해야

교과과정개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실천하는 제주체(교수, 학생, 원생 등)의 각성을 통한 진보적 학문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물로서 존재하는 교과과정위원회라고 하는 구조적 틀이 있어 교과과정의 개편의 경우는 전체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교과위가 담보하고 전공과정의 경우는 학과

권 하고 싶은 책

새롭게 한해를 맞이하여 읽고 추운 겨울방학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내고 있을 학우여러분에게 몇가지 책을 권하고자 한다.

잠깐 잠깐 읽어내려가거나 혹은 며칠작정으로 읽는 책 속에서 계속적인 자기완성과 함께 축적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컴퓨터 길잡이 (도서출판 민족통일, 조관희지음)

컴퓨터를 알고 싶거나 어려운 설명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 입문서 특히 인문사회와 학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서편집(워드프로세스), 응용체계(도스)컴퓨터통신까지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특히 저자의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자판은 정, 기술중속에 대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집필한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사람아 아, 사람아 / (다섯수레, 다이호우 일 지음, 신영복 옮김)

이 소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문화혁명에 대한 비판보다 그러한 역사적 격동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으며 또 인간과 인간관계는 이러한 격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시종일관 인간을 변화·발전하는 동태적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며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호소하고 있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현재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왜곡왜변된 사람과 성을 다양한 형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참작과비평사,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엮음)

부천시 성고문 사건, 망원동 수재 사건을 담당했던 우리시대의 어둠을 밝힌 인권변호사 故

조영래씨가 남긴 글.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 문이환 육중 서한집(삼민사)

복합을 방문하여 통일의 시대를 연 문이환 목사의 육중서한집. 단절과 절망, 분열과 고통의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주는 글이다.

■철학산책(대동, 유지혁 지음)

철학은 '똥구름'이 아니라서 것을 산책하듯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디가도 사람생각합니다 (지리산, 조광 동지음)

미국에 사는 조광동 기자가 3주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쓴 기행. 기자다운 날카로운 시각과 같은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서술했다.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민맥, 이 성태 지음)

현대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대한 경제평론가 이성태의 전면적, 여기서 우리 재벌기업 현대와 우리나라 독점재벌의 행태를 알 수 있다.

■나의 교단(물결, 최상순 지음)

이 땅의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꼭 읽어볼만한 책.

■식민지의 아들에게(백산서당, 오연호 지음)

반미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 책은 말지의 오연호 기사가 발로 전국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쓴 글이다.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 권력재편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붉은 바위(일월서각, 양익빈·나광빈 지음)

중국 공산혁명 당시 혁명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놀랄도록 진솔하고 훌륭한 사람됨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채워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부)

◇교수 채용의 의미와 교과위 과제

과 교과위 체계 인정화 금선무

민주적 교수영입 요구는 학습자의 권리

92년 1학기 신규교원 채용이 방학중에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겨울방학에 실시했던 91년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처럼 새학기 학교-학생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접수가 마감된 올해 1학기 교원초빙은 서울·경주캠퍼스 16개 학과 16명 모집에 총 6백명이 접수, 1월 초부터 학과 서무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1년 1월 4일 '교수 채용에 관한 학교-학생 공동협의서'가 파기된 채 지난해 1학기 교수채용이 진행된 과정에서 나타난 스터류심사 특혜 의혹 △학과 심사 결과부시 △채용분야 선정에서의 학생의견 배제 등의 문제로 91년 1학기 내내 학교가 시끄러웠던 점을 학교측이 기억한다면 해당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게 중앙학생교과위의 말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 독단



◇올해 방학중에 진행되는 신규교원 채용에서 학생의견이 무시된 채 심사가 진행될 경우 새학기 학교-학생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동생과 교수채용투쟁) 학생들은 채용과정의 학생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학교측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 학생참여와 채용과정 공개에 대한 학교-학생간의 협의여부가

새학기 학교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다.

신규교원채용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재단과 1차 심사자인 학과 교수들의 태도다.

이는 지난해 1학기 학교를 시끄럽게 했던 근본원인이 자기 인맥을 심으려는 학과 교수의 알력싸움과 재단의 '입김'에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중앙학생교과위는 이번 신규교원 채용에서의 학생참여 방법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교수채용투쟁은 교과과위에서 담보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채용투쟁을 통해 교과과위 조직 강화 및 주체 마련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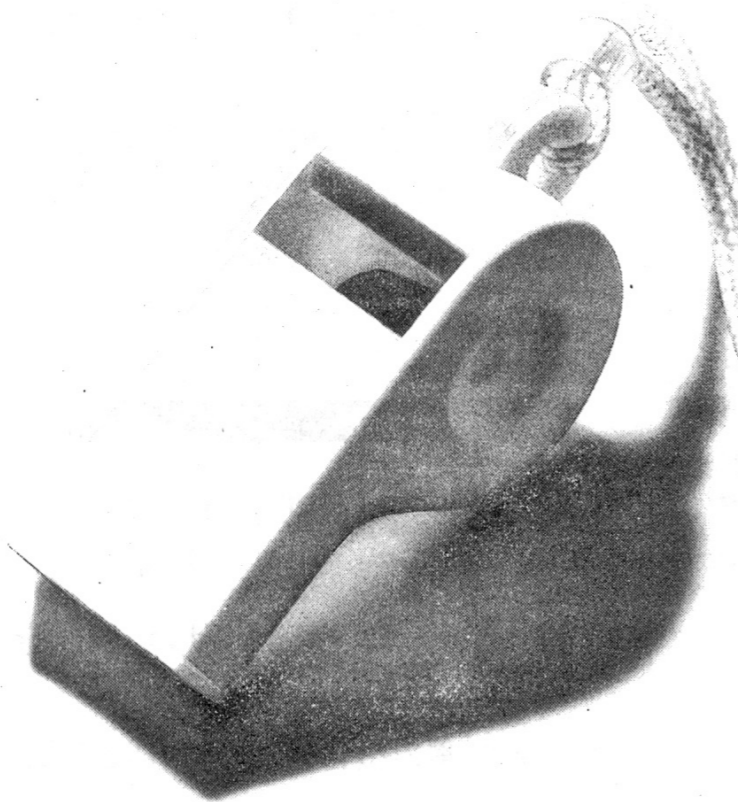
사실 그동안 교과과위 체계는 신규교원채용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반짝했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과과위의 열악한 조직 구성은 올해 각 학과의 여론에 따라 결정될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커다란 사안이 놓여있어 어느때보다 교과과위 체계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신규교원 채용에서 중앙학생교과위와 교과과위의 관계는 상호연대를 통한 조직강화로 교과과위 체계의 안정적 토대(주체마련, 상설기구화)와 민주적 교수 영입을 위한 학교행정의 감시라고 할 수 있다.

(이병민 기자)

“호루라기 이야기”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낮 한길에서 아이들이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여자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두려웠습니다. 어른들도 밤이 되면 무서워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하루는 이 도시의 한 국민학교에서 어린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호루라기를 하나씩 목에 걸고 등교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한 아이가 지나가는 학생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열린 호루라기를 힘껏 불었습니다. 불량배가 어린이에게 쫓아왔습니다. 아이는 달아나면서도 계속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다른 아이들, 행인들, 슈퍼마켓 아저씨, 아파트단지의 주부들도 어린이회에서 나누어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대는 호루라기 소리에 마침내 불량배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루라기 소리는 천둥소리가 되어 끝까지 불량배들을 따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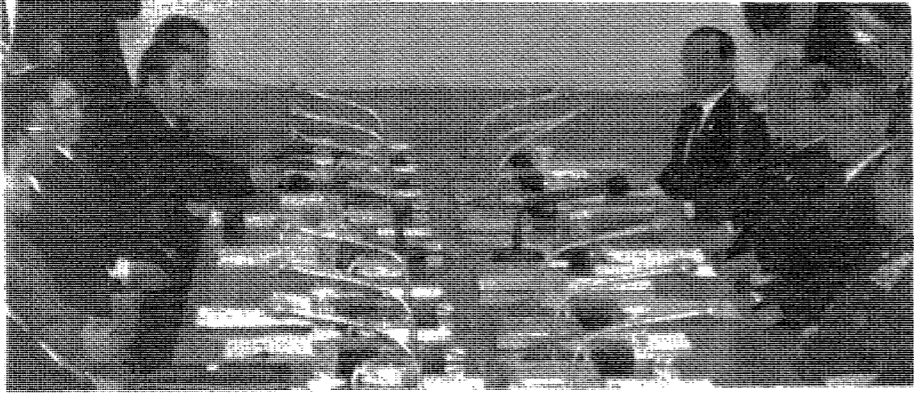


특집

남북한 공동합의서 의미와 남북한 입장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 평가와 전망

대치상황 '끝' 남북화해 '시작'



○남북고위급 회담 제5차 회담이 12월 13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남측은 남측 고위급회담 대표단, 북측은 북측 고위급회담 대표단이다.

남북한이 지난 12월13일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을 공동발표했다.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 이래 남북관계를 처음으로 정상화하는 공식문건으로, 지난 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시작된지 15개월만에 나온 것으로써 '평화통일대장전'으로 불리던 좋은 역사적인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등 실질적 조치 취해야 합의서 채택 성과... 총선때 정치적 이용 우려

이제 분단 이후 46년간 남북한 양쪽에 걸곡으로 작용했던 대결과 불신의 벽을 넘어 평화공존의 열려를 가능케 해주는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내치제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한간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핵문제 △불가침선언 △군축문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교류협력 문제 등으로 뚜렷이 부각되었으며, 문제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점이었던 것이 일 반적인 평가이다.

과제 이외에,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취약해진 '내치문제'를 유리하게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 총선 등 4대 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을 강력하게 기대했으며, 주로 정권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의 정세변화와 교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남북관계의 정세변화와 교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재성 상실한 국가보안법

북한을 '적'이라는 단정을 함으로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던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라(그것도 공안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해왔는데 분단 46년을 마감하고 서로간의 반목, 질서를 끝내겠다는 합의서를 채택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다.

다. 그러나 달라졌는가? 지난 6월 상상을 초월한 학살은 문을 문재성(그것도 박사학위 논문은)을 구속시킨 사사건건 사건에서, '개구장'이라는 생활용품 판매점을 전횡하며 자금조달이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며 사정

있었다. 현재 구속 양심수는 1천2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96명이 7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장기 양심수이다. 이들 중 48명이 비정치범으로 최고 41년씩 복역중인 이중환, 김선명씨 세계최장수이다. 또한 30년 이상을 복역하고 있는 초장기수는 15명이나 된다. 무엇이 한 인간을 평생 감옥에서

있었다. 무엇이 한 인간을 평생 감옥에서 있었단 분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첫걸음은 먼저 이들의 석방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합의서가 온통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이제는 통일론의 문턱에 들어서려는가 보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합의서를 채택한 지 며칠 안돼 열린 홍근수 목사의 선교공판에서 내린 '시대는 변해도 보안법은 불변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본 사람들은 다시 시간 환승을 내쉬었을 것이다.

국보법 있는 한 합의서 의미없다

기나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이 범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보복하고 힘을 기세시키고 위기를 모면해 왔다. 한때 여야 합의로 개혁입법의 논란이 되다가 지난5월 날치기로 민자당안으로 개정된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점들을 모두 보완해서 고쳤으니 '이제는 문제 없다는 선전을 해내고 있

을 구속시킨후 막상 혐의가 없자 갖고 있던 책 권권을 이적표현물 소지자라며 겨우 기소했던 이성 원씨 사건에서 범법된 관련으로 침순의 할머니인 박순경 교수 구속, 운동권 유인물을 인쇄해달라고 등지인쇄소 사장 및 직원 구속, 10년전 우연히 공연관게로 받아온 일문짜위계 연극대본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덕대강사구속 등 최근의 몇가지 예에서도 알수

보내게 하는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일반국민수도 대개 15~17년이면 석방되는데 이들은 병들고 쇠약한 몸으로 한도 끝도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당하고 있는가? 또한 주로 5공 독재 시절 반공이란 미명하에 억울하게 조작된 공작정치의 희생양인 40여명의 조작간첩들을 다 어쩔 생인가? 이들의 구속이 분단으로 비롯

의 산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전환 석방에서부터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남북 합의서의 진정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총선을 앞둔 정권여당의 정치적 선전을 노린 기간 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남규선 (민간협 간사)

정동규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한반도 핵문제와 합의서 '유지' 가능성

이번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 등의 '남북공동발표문'이다. 즉 이번 고위급 회담의 획기적 성과인 '합의서 채택'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합의서 채택은, 애초에 핵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합의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남측 협상 주도권잡고 '흡수통일' 노력

입장 갈리면 '없었던 일'

북측 '핵카드'는 경제난 타개책 일환

예상된 것이 비추어 본면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주목을 끌었던 '한반도 핵문제'는 5차 회담의 개최 이전부터 최대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남북한은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폐기 여부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 그 결과 5차 회담에서의 합의서 채택 가능성은 핵문제에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가 맺고 있었다.

입장은 남한 정부의 대북협상에 강한 '입김'으로 작용해왔던 점에서, 미국의 '반발'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도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마다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문제를 따로 논의하기로 한 합의서의 채택에 대해 남한 정부와 미국간의 적대적 입장인 '협'의 '가' 있었을 것이요, 고위급회담이 지난 며칠 후 노태우 대통령이 미북회담기 철수를 공식화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군사력을 감축하고 무기의 질적경쟁부터 하지말자는 북측의 입장과 경제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남측의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을수도 있다.

오호러 미국의 입장에서 한 반도 핵논의의 주도권을 남한 정부에게 협상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북한에 계속적인 미국과의 직접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정권식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1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5개항으로 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오는 92년 1월 31일 이전에 북측의 순천비행장 및 영평의 핵시설과 남측의 군산비행장이나 그밖의 북측이 선점하는 군사시설과 민간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하고 재외"한 것은, 남한 정부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발표를 계기로 이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

바로 이런 점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남북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핵안정협정 서명을 빌미로 북한에게 '고립'과 '굴복'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 의 입장과, 반면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 받으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핵문제의 본질이 미-북한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미국의 의도에 따라 남북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유지'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서인석 (성균관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한국경제)

“합격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첫번째 선물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와 풍요로운 대학캠퍼스 생활을 위한 대학종합정보 교양지 「캠퍼스저널」은 대학을 위한 대학인의 동반자입니다. 대학의 정감을 나누는 「캠퍼스 저널」이 여러분의 소중한 첫번째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 '92 Year Planner를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하시는 분에게 캠퍼스저널 '92 Year Planner'를 보내드립니다.
* 발행과 동시에 지정매달에서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용도는 분사가 부담됩니다.
* 분사소장 각종 타이타메이 사용 및 여러가지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 친구나 친지에게 보내실 경우 기증자의 명의로 책이 우송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시 「캠퍼스저널」에 따라는 내용이 다르며 적외선인 후속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우체국대금과 011965-31-2830875
□은행계좌 예금주 (주)한국 유·영·아이
□국민은행 (006-01-0652-585)
• 제일은행 (126-10-103876)
• 농 협 (053-01-151356)



캠퍼스저널 CAMPUS JOURNAL

서울 미포구 서교동 468-1 (대) 02-323-7722, (FAX) 323-8029 (광고) 741-1661

Registration form for 'Campus Journal' subscription, including fields for name, phone, address, and subscription type.

제 6회 동대문학상시·소설부문 수상작

소설부문 장려상

그날은(너를 우연히 만났던 날은) 잘 받아냈다.

영성하게 맞물린 창틀 유리에 겨울이 자꾸만 쿵대대 부딪혀 온다. 이번 겨울은 내게 단절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살갓으로 느껴지는 겨울의 감각이 배서워지면 배서워질수록 그 단절의 의미는 더욱 강하게 나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다. 이 겨울은 단절의 의미로 자꾸 나를 밖으로 몰아부치고 나를 소외시킨다. 겨울이라는 이 계절의 밖으로가 아닌 올해의 마지막 계절밖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학에서 내가 보낸 네년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밖으로 나를 밀어내는 것이다. 살아가고 헤가 바뀌고, 나이를 먹는 것들이 무언가를 쌓아주는 축적이라 생각했었던 데 온통 겨울은 그 축적들로 이루어진 감각처럼 단절 시켜버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대학 사년은 내 삶의 연표로 오래도록 쌓아두고 남겨두어도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건 잠시 소유할 수는 있어도 약속된 시간이 흐른 뒤엔 깨끗이 단념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대여품 같은 것이었다.

그 시간들은 단지 유예의 시간들이었다.

물론 그 유예의 시간에도 난 변함없이 살아왔고 또 변화했다.

벉쳐들 글을 생각한 건 이 겨울의 절박함 때문이었지만 정작 이렇게 글을 쓰도록 부추긴 건 그날 날 우연히 만났다는 일이다.

글에 대한 이야기 꺼내려면 국민학교 때 이야기 먼저 해야겠다. 국민학교 5학년때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 글이 어린이신문에 실렸던 일. 그날 선생님은 아침 조퇴시간에 쓸소리위하는 나를 대신해서 짝이었던 나에게 반어기를 달아주셨다. 그 글을 읽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도 그 글은 뒷철관에 한달내내 붙어 있었지.

그때 난 그 조그마한 우연을 가지고 커서 글쓰는 사람이 될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내 환경 조사의 장래희망엔는 꼭 작가라는 꿈이 적혀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때의 일은 어린시절의 추억같은 것이었고 중·고등학교때 사춘기 소녀의 감성같은 거였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글을 생각하는 건 무모하단 느낌이 든다. (하긴 내가 쓰는 글들은 드러내어지고 비평되어지는 것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내가 글을 꿈꾸는 건 오래된 무순 습관같은 것이 아닌지, 아니, 어쩔때 글이 어쩔수없어질 것 같을 때가 있다. 생활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밀려올 때면 책속에 팔린 북쪽처럼 어둠이 어둠이 함께 깔려나와 날 붙들곤 했다. 이 겨울의 절박감과 예외는 아니었다. 이 겨울이 주는 단절과 소외로 헤집어진 내 머리속에서 난 조그맣게 꿈틀거리는 글의 충동을 봤다.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토해낸 글들을 내

빈손에 움켜쥐는 것. 이 겨울의 상실감에 그런 자위라고 하고 싶었다. 나는 초라한 대로 내 존재의 증명처럼 의무감 비슷한 걸 느끼며 이 겨울에 글쓰는 작업을 실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우연히 널 만났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보낸 대학 사년의 시간을 확인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얼마 심부름으로 반찬가게에 가거나 중고점 건물쪽 좁은 우리네

석에 도로 척박하기 싫어진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무심결에 떨어졌던 곳이 그 공원이었다. 늘 보는 그 거리가 메모음을 갖추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고 한산한 그 거리를 겨울 특유의 희색빛 공기와 말라 비틀어진 노란 은행잎들이 채우고 있었다. 그 거리에 겨울빛깔을 띄지않은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노란 은행잎의 시체더미가 자꾸 발밑에 걸리는 거리를 따라 공원에

알아? 잘 뛰어서 데리고 다니면 우리 얼마 되게 좋아하겠네. 그런 생각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되면 해도 한년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다."

경선이는 아무말 없이 씩씩웃고 웃고 만 있었다.

"차, 이상하지. 난 개를한테 견종하고픈 어떤 인간적인 면도 발견 못했고 또 개들과 견종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보면, 무슨 조건만사 실행 두 아니구..."

같은 걸 느끼게 하고있었다. 그만큼 너의 얼굴은 장난꾸러기 아나나 낯설은 변성을 맞은 사춘기 소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나와 있었다. 웬지 가칠하고 그윽한 듯한 얼굴의 무게.

난 아직 2학년이라고 했다. 제수, 삼수는 블라도 아직 2학년인 내가 부럽다고 나는 말했다.

"미팅 많이 해?"

난 어색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우리 대화의 빈공간에 손쉽게 흔한 이성이야기를 끌어올렸다.

너는 니가 자주 간다는 학사주점으로 나를 끌었다.

점심으로 뛰어만든 장식물들, 나무로 된 탁자와 의자들이 제법 전통의 분위기를 연출하려 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었지만 천장에 둘러쳐진 빨강, 파랑의 저지분한 조명등, 벽면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음질이 떨어지는 빠른 박자의 팝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술과 찌개가 놓여지고 너는 급하게 잔을 채웠다.

"제수, 삼수하면서 여기 많이 왔었어."

"....."

"그때는 힘들긴 했어도 대학을 꿈꾸는 일이 행복했어. 오히려 낭만적이었지."

고개숙인 너는 힘없이 웃고 있었다.

"오늘 참 허심상하다. 괜히 감상적이 되는데...."

말없이 술잔을 비우고 나서 넌 그렇게 말했다. 마치 감상적이었음을 바 달라는 투로 너는 싱겁게 큰 목소리를 냈다. 2층들이 소수명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유예된 시간을 위하여

가끔 부딪칠 수 있었지만 내가 이사를 가고 학력고사를 며칠 앞두고 있던 날 시내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는 우린 한년도 만나지 못했다. 그 만남 이후로 사년동안 꼬박 너는 내게 잊혀진 존재였는데 그날 그 공원에서 너를 본 것이다.

그날 "그동안 잘 살았나?"는 너의 말을 받은 내기는 순간 늘어진 테이블이 절린 녹음기의 울림 같았다. 커다랗게 그리고 천천히 너의 그동안이라는 말은 나의 뒷바퀴를 돌아 내가 보낸 대학에서의 사년의 시간을 다시 확인케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가 계획한 겨울 작업을 나의 남은 낙서정도에 이렇게 실행해 옮겨야 하고있었다.

사실 글쓰는 일 말고도 이번 겨울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전래된 졸업 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경선이를 피어서 강릉행을 계획했었다. 그리고 너를 만난 그날은 우리가 떠나기로 계획한 바로 그날이었다.

여행하면 언제나 여자라는 이름의 반대가 붙었다. 주로 얼마와 오빠가 그랬다. 아내는 배후에서 돌아오는 사태를 보여 최종적인 승인을 내리는 쪽이었고 오빠는 언제나 아빠뻘의 반대를 하고 나섰었다. 그 구도속에서 난 빈번히 무조건의 고집쟁이로 낙인찍히 가며 허락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역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엄마는 내가 여행준비하는 것을 트집잡으며 걱정을 늘어놓고 계셨다. 그런데 막 준비를 끝내고 헌관문을 나는 나를 전화벨이 울렸다.

"나 못가."

내 목소리를 확인한 경선이는 대뜸 그 소리부터 했다.

"아빠지매?"

능력있는 남자와 만나는 일. 그것이 여자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크나큰 과업같은 물음이며 또한 말 걸기 무모가 느끼는 최대의 기쁨이라는 말이 끝낸여자들의 씩씩해진 생각이 아던 절박한 현실로 부딪히게 될때마다 나는 자포자기식의 소리라는 자국이 나를 막연한 느낌으로 물고가는 중이었다.

"저기, 잔돈이 없어 그러는데요 잔돈 있을 거면 한잔만 적신데요."

먼저 붙은 단화, 밀가루이 많은 청바지. 난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끌어들였다. 국방막 아연잠자에 자판기를 가리키고 서있는 한남자.

"잔돈이요?"

그렇게 말하는 안경너머의 눈빛.

"저...혹시...김태..."

"어? 너 송민주?"

뜨뜨이는 내 고개짓에 내가 웃었다.

"너야말로 남자가 필요하진 아니냐?"

장난스런 너의 물음에 나는 그냥 웃었다.

미팅은 대학 사년은 통해 열손가락을 꼽을까?

난 미팅을 거의 기피하시라고 했다. 미팅이 시간때우는 일이 되는게 싫었고 더구나 그자리에서 느껴지는 내가 여자라는 의식의 확인은 날 더 속 못 견디게 만들었다.(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호랑이 떼에 먹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별로 변화되거나 발전되어 온 바 없는 세상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굳어져온 여자를 말하는 거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여자란 남자를 대할때 너무 쉽게 굴면 얕잡다고 볼 한다.(흔히 빙킹다고 하니?)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훌훌떠러지고 절대 노출적인 내색은 금물이고 만나

원서를 접수하러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나도 대학을 꿈꾸고 있었다.

지침기만 하면 시험공부를 받으므로 미루고 억지로 낮잠을 청하던 중독대는 가슴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선잠이 들었다. 그 잠속에 언제나 내가 꿈꾸는 대학의 모습이 보였다. 그 신감에서 깨어나 방안 가득 들어찬 이음을 확인하는 잠담함속에서도 난 대학의 꿈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아침부터 째뵈하더니 전철에서 내려 막 학교로 들어서는 길목부터는 진눈깨비가 내렸다. 머리에 옷자락에 내리서면 녹아버리는 눈이 축축이 몸에 배어드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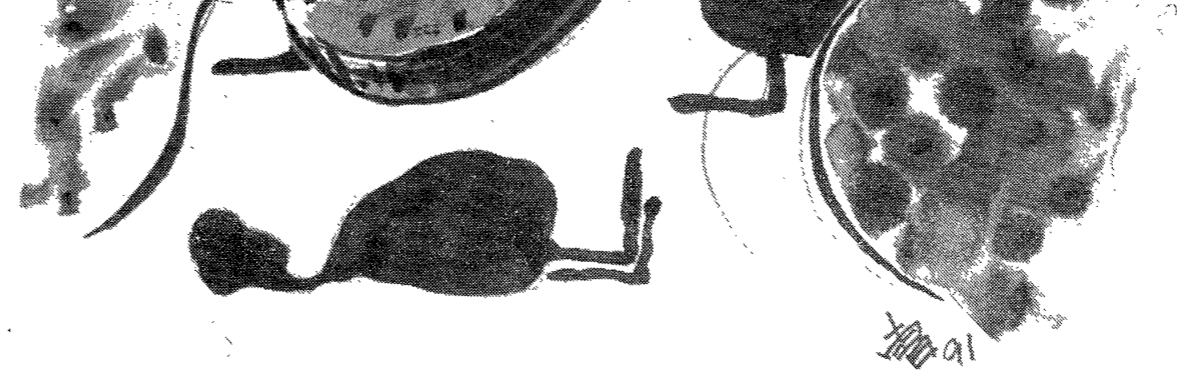
이곳 저곳 둘러쳐진 건물들,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통풍이 어렵게 벽면을 매운 대저로. 그런 것들은 그대로 대학의 모습으로, 분위기로 내게 다가왔다.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않은 모습들. 썰렁한 일당에서는 무슨 집회가 열리고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어느쪽 이층강의실에는 수업이 열렸었다. 운동장 어느 콘에선 시원스럽게 두들겨대는 북, 장고, 쇠소라. 이곳 저곳의 우리 우리들.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밥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같은 시간에 물러가는 일이 없었던 학교, 이곳이 대학이구나 하고 느꼈었다.

반란 이루어 강당의 제대로 적식을 갖추지 않은 집회, 그러니까 고등학교이던 내가 원요일마다 치르는 조희시간과는 얼연히 다른 분위기의 집회, 외치고 싶은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때로는 무언가를 말하고, 혹은 외치고 힘차게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낯설은 그 장면을 앞에 두고 난 한년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젊음의 모습을 떠올렸었다.

이게 바로 젊음인가?

말하면서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생각이었다.

고내 식당옆의 벽면에 붙여진 합창자 명단에서 내 수필번호와 이름을 절대 인식되어 굳어져온 여자를 말하는 거다.)



순간적으로 경선이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경선이가 아버지 때문에 여행이 무산되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여름의 산행에도 경선이가 아버지가 붙까지 가방끈을 잡고 계시는 바람에 없었던 일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 역시 다 큰 처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무튼 미안해."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한숨소리를 교환했다.

어떡 할까?

가장까지 둘러낸 상태였는데 방구

달았다. 공원도 비어있던 마천까지였다. 입구에 초상화를 그리려는 화가 한 명이 일찍부터 자신의 그림들을 바닥에 정리하고 있었고 한쪽 나무의자에 잔뜩 몸을 웅크린 남부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모로 누워있을 뿐이었다.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커다란 아몬드나무를 둘러싼 의자대로로 가 앉았다.

아의 공연장을 잔뜩 매운 사람들, 확성기가 뱉어내는 노랫소리, 군데군데 둘러앉아 벌어진 술판, 부정확한 발음과 얼얼한 박자로 부르는 악다구니, 걸쳐질듯 몸을 붙이고 앉은 남자, 혹은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는 눈빛의 남자와 여자의 무리. 난 그 공연의 밤의 모습을 익숙하게 눈앞에 떠올리며 지난 주말의 일을 생각했다.

그날 술마기로 의기투합을 본 경선이와 나는 일찍부터 그곳 어느 술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술을 마신후 인제나처럼 그 공원으로 나왔다. 다소 멍한 의식속에서 알코올이 남긴 씩씩한 감정을 자판기 커피로 씻은 일, 그것은 무언중에 약속된 우리들의 정식 코스같은 거였다. 경선이와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외자 한구석에 붙어 앉았다.

"저기, 잠깐만... 잔값이면 같이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요. 이런걸 헌팅이라고 하던가요?"

내가 경선이의 어깨에 기대어 노래를 흥얼대고 있을 때였다. 별로 호감가지지않는 평범한 얼굴의 남자 한 명이 우리 앞에 서있었다. 이리건 저무 혼란 일에서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떨구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 한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맨주먹으로 끌었다.

"새대 차대 본과 2학년 000입니다."

능력있는 남자와 만나는 일. 그것이 여자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크나큰 과업같은 물음이며 또한 말 걸기 무모가 느끼는 최대의 기쁨이라는 말이 끝낸여자들의 씩씩해진 생각이 아던 절박한 현실로 부딪히게 될때마다 나는 자포자기식의 소리라는 자국이 나를 막연한 느낌으로 물고가는 중이었다.

"저기, 잔돈이 없어 그러는데요 잔돈 있을 거면 한잔만 적신데요."

먼저 붙은 단화, 밀가루이 많은 청바지. 난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끌어들였다. 국방막 아연잠자에 자판기를 가리키고 서있는 한남자.

"잔돈이요?"

그렇게 말하는 안경너머의 눈빛.

"저...혹시...김태..."

"어? 너 송민주?"

뜨뜨이는 내 고개짓에 내가 웃었다.

"너야말로 남자가 필요하진 아니냐?"

장난스런 너의 물음에 나는 그냥 웃었다.

미팅은 대학 사년은 통해 열손가락을 꼽을까?

난 미팅을 거의 기피하시라고 했다. 미팅이 시간때우는 일이 되는게 싫었고 더구나 그자리에서 느껴지는 내가 여자라는 의식의 확인은 날 더 속 못 견디게 만들었다.(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호랑이 떼에 먹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별로 변화되거나 발전되어 온 바 없는 세상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굳어져온 여자를 말하는 거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여자란 남자를 대할때 너무 쉽게 굴면 얕잡다고 볼 한다.(흔히 빙킹다고 하니?) 그래서 상대가 마음에 훌훌떠러지고 절대 노출적인 내색은 금물이고 만나

그 시간들은 단지 유예의 시간들이었다. 나의 대학 사년은 삶의 연표로 오래도록 쌓아두고 남겨두어도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건 잠시 소유할 뿐 시간이 흐른 뒤엔 깨끗이 단념하고 돌아서야 하는 대여품 같은 것이었다.

심사평

『태백산맥』의 작가...등을 배출한 이 전통 깊은 문학상의 소설 부문 총 응모 편 수가 গত 다섯이더니, 우선 유감스럽다는 생각부터 앞선다.

동국대학의 문학도들은 좀더 분발할 일이다. 응모 편 수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작품들의 수준도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

『유예된 시간을 위하여』(임미라·사회화과)는 아직은 미숙한 작품이다. 문학적 감수성은 엷보이지만, 이

야기를 구조화하는 기량이 부족하고, 특히 문장이 서늘하다.

『첫눈』(진선록·국어교육과)은 응모된 작품들 중에서는 단연 뛰어난다. 세상의 타협하는 대신 감옥을 택한 남편의 면회 날자를 기다리는 화자의 삶의 정황과 심리가 섬세한 표현을 얻고 있다. 문장도 수련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야기의 발전이 정체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는 서사-사건의 진솔함이 없다.

『첫눈』을 정려1석에 올리지만, 격려의 뜻이 크다.

한 용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수상소감

『태백산맥』의 작가...등을 배출한 이 전통 깊은 문학상의 소설 부문 총 응모 편 수가 গত 다섯이더니, 우선 유감스럽다는 생각부터 앞선다.

동국대학의 문학도들은 좀더 분발할 일이다. 응모 편 수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작품들의 수준도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

『유예된 시간을 위하여』(임미라·사회화과)는 아직은 미숙한 작품이다. 문학적 감수성은 엷보이지만, 이

감히 글을 내 삶의 표현양식으로 삼고픈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다. 생활의 최전방에서 서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이라도 쓸적이며 나 자신을 증명해보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글이란 생활의 최전방에서 세상살이의 전형을 얻고 느끼고 비판하고 종합하는 무척이나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인마를 통해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 맨처음은 "정말일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었다. 그다음은 웬지 돌출감, 이체서야 그 감잡힘이 무엇이었는지 알겠다. 수상소감을 쓰기 위해 빈 원고지를 대하서 무구멍까지 치달아 오르던 울음덩어리, 마구 폭속 거리면서도 눈물은 눈동자에 가득 머물렀, 자꾸 가슴속으로만 가아들었다. 4년이라는 시간속에 내 모습이 떠올라서였다. 또 연민이었다. 자기연민.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역시 나는 다시 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 이 상의 의미를 모르겠다. 좀더 고민해 볼 것이다. 나의 글을 있게 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글을 관심있게 살펴보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함을 드린다.

임미라

(사과대 사회화과 4년)

넌 직간접이 뛰어났다.

그 짧은 시간에 너는 내가 늘 부끄러움을 타고 있음을 쉽게 눈치챈 것이다. 사실, 4년이라는 찬란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뒤돌아 부끄러워해야했다. 부끄러움으로 글을 썼는데, 글속의 민주가 나를 덮어 있는 것같이 다시 부끄러웠다. 글에 대한 발견을 잠재우기란 힘들다. 하지만 언제나 그 글은 변명이고 자위였다. 내게 있어 글은 그런 거였다.

자네 말을 먼저 해서도 얕잡다고, 물론 나는 의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여성을 수동적이며 비주체적인 존재로 축소시키고 있는 유치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자리에서 빈번히 그런 수동적이며 비주체적인 여성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남자의 말에, 행동에 비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히 설명하자면 나의 이런 태도에 는 좀더 복잡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의 이러한 비껴감에는 단순한 수동적이고 비주체적 의식만고도 또 하나의 다른 트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이다. 일종의 피해의식이 낳은 자기방어라 할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남기를 들고 비껴가고 싶어지는 거다. 아무튼 나의 이런 복잡한 의식은 미팅의 분위기를 흐트러기에 충분했고 그런 이유로 나는 미팅을 꺼려했었다.

우리가 카페를 나왔을 때는 무겁게 드리워진 하늘의 겨울에 얼마중 기 울어져 있었다. 배가 고파졌다. 우리는 근처 분석실에서 라면으로 배를 채웠다.

"그럼 이제 3차는 술집인가?"

두었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일시에 덮쳐오는 눈부심으로 눈빛을 사려냈다.

입창.

내가 꾸었던 대학의 꿈을 실현할 때였다.

젊음을 누리고 싶다는, 향유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학회에 섰듯 불타고 있었다.

그런 일을 한다는걸 절실한 고민이 없이 무슨 젊음만이 가지는 소유품이라 생각하며 뿌듯해 했었다.

학회의 일이 주려는 일, 향유하는 일이 아니고 내 몸이 무겁게 감겨오는 피할 수없는 단란한 차가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유년시 시간을 끄는 대학의 부추우기와 가고 개나리와 전달레가 그려진 군데군데를 도란뵈므로, 분홍빛으로 색칠하던 때였다. 나는 메운 최후의 순간에 선배들의 충렬된 빛에 익숙해지면서도 강요당하고 있는 듯한 끈질김에 힘겨워하고 있었었다.

늦은밤 이마까지 차오른 술을 다섯 고공스런게 제비처럼 차가운 학회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배들의 모습은 나를 아주 작게 축소시켰다. 그들의 고통에 나 또한 한몫 했을 거란 생각이

(8면에 계속)

(7면에 이어)

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건 죄책감이 라기 보다는 중압감이었다. 내겐 그 들의 삶이 무거운(사실은 내 삶의 무 게이기도 하지만) 나누어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현실을 똑바른 눈으 로 직시하자면 머리를 세차게 내치고 싶어하는 내모습을 봤다. 선배들의 무거운 이야기에 질려서 친구들을 만 나면 또한 그들의 사소한 일상적인 화제가 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부딪침속에서 그 어느 쪽에도 서있지 못해 영거주층한 내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날 압축하게 했다.

그런 모습으로 가을을 나는 일은 더욱 우울스러웠다. 그날은 교정의 바람이 더 극성스러웠다. 하루종일 그 바람에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데 걸가의 전자제품 대리점 전일대 T·V화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 리 새웠다. 여자 아나운서의 왼쪽 머 리위로 "대학생 0명 XX당사 절거" 자막이 흐르던 등점이 지워진 채 무 침히 흘러가고 있는 무리중의 하나. 병어리 화면속에서 그의 입모양이 끈 절기게 외쳐대고 있었다.

"....."

후배들의 점심값을 추내던 그가 학 교식당에서 내게 오백원짜리 동전을 내밀어 주고는 방긋이 웃던 며칠후였 다.

구속.

어두운 감방안에서 눈을 빛내고 있 을 그 선배를 생각하며 날 며칠동안 다른 짐을 삼켜야 했다.

내가 2학년임을 실감케 해 준 건 후 배라는 존재였다. 그 존재들이 날 힘 겹게 2학년으로 선배로 밀어 올렸다. 그 존재들이 일년전의 나의 고민과 같 등과 번민들을 상급히 정리할 것을 계속했다. 그리고 일년전의 나의 고 민과 같등과 번민들에도 불구하고 후 배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일년전 내 가 보았던 선배들의 모습과 많이 닮 아있음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여전 히 나는 영거주층한 자세였다. 선배 들의 슬위한 모습이 나를 그렇게 만 들었던 것처럼 램타촌 방구석에서 흘 리는 후배들의 눈물속에서도 내 모습 은 축소되고 있었다. 난 그들의 슬픔 에 한숨만을 보태어 줄 수 있는 선배 였다.

일학기가 끝나면서 동지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열 심히 하라는 말을 남겼다. 주제로 당 당히 서있다가 보다는 힘겹게 버티고 선 나에게 대고 말이다. 난 지평해 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저 내가 눈 돌리지 않는 한 거꾸로된 현실을 바 라보는 일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흘 리고 간 의무감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리는 기분이었다. 생사는 사 명감으로써가 아닌 회피할 수없는 의 무감으로써였다.

2학년의 마지막에 난 화회를 정리 했다. 조직으로부터의 이별은 마음 한구석 이던지 행한 허전함을 동반했 다. 어디에서고 우리앞에 버티고 선 현실은 변하지 않으며 내가 해야 할 고 만들, 행위들도 여전히 그 바탕위에 있을 거라는 다짐으로 그 구멍을 배 워보려 애썼다.

우리가 2개의 소주병을 비우고 주 점을 나오니가 거리는 이미 깊은 어둠이었다. 준비해 있는 술집에서 빠 저나온 슬위한 젊은들이 이곳 저곳 눈에 띄었다. 골목 구석구석에 시긋 한 뉘새를 쫓으며 젊은의 고쳐쳐쳐 구토물들이 흘러져 있었다.

"집에 가야지"

그 목소리가 귀기로 약간 흔들렸 다.

"난 집에 전화해. 난 전화해 봤자

시부문 본상

달래강

I.
강이란 강은
몸을 낮추어 어디로 가나
머리칼 풀어두고
흐느껴 울다
그리운 산 그리운 들
감아 돌다가
뭇내 아쉬워
적시어 놓고
물비늘 반짝이며
가는 강아

II.
눈 감아 그댈 그린건
단지 뭇내 안은 바람땀,
물푸레 나무잎새 뒤집어
하얀 손 흔드는
길
길은 멀다

강기슭 거슬러 걷는 일은
강물만큼 흘러가는 일
호르다 누운 돌들이
살 다 내리고 심장으로 남아
산 빛 담근 깊은 속내
다 비춰주는 강

강을 본다
호르다 호르다 보면
그대에게 닿을 수 있을까
갈 길을 물어도
강물은 그저 흘러만 갈 뿐

맨한 소릴테니까."
니가 말쑤히 날 쳐다봤다.
"무단입학은 처음이지만 한번쯤 해 보고 싶었어."
난 끝까지 성직계 무산된 강릉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외동이 꺼진 초라한 여관으로 들어 서는 골목입구에 날 세워두고 너는 구멍가게로 들어가더니 말라 비틀어 난의 깨끗한 등어리를 느꼈기 때문이 었다. 군데로 하나씩 끌려가는 남자 애들이 내겐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남겨 주며,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싸 짊어지고 학교를 떠나갔는 지.
"그무렵 나는 너의 두뇌를 침투해 온 이상한 향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세균들은 나를 이상한 피해방상으 로 몰고가서는 방어적인 인간으로 나 를 만들도 있었다. 흰겨운 의무감을 내게 부과한 객관적 현실로부터, 그 의무감을 당당히 짊어지지 못하고 있 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로부 터 내가 상처받도 있다고 그 세균들 은 시그리게 떠돌아다녔다. 나는 언제 나 수제적인 자제로 몸을 움추리고 초조한 눈앞을 굽었다.
밤이면 젊음의 시버린 칼날로부터 난도절망하고 있는 내모습을 보고도 아찔하면 또 다시 아무일 없는 듯 새 수를 하고 밥알 몇 개를 주워 올리고 전철역으로 지루하 게 발을 놀리는 시 간들이 흘러갔다. 그 절망감에 대 켜없이 잔혹 앞뒤 도 없는 글발이 새 워졌다. 나는 나의 낯서장속에서 여러 인물을 잉태해서는 곧 죽어버렸다. 현실속의 내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정열적이기도 용기도 없는 초라한 젊 음들이었다. 내죽음을 대신해서 그들 이 죽어가고 있었다.
3학년은 2년의 시간보다 더 빠르 게 흘렀다.
"올해의 봄은 기억하기도 싫어!"
"....."
"하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거 야."
너의 말꼬리에 꺾히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봄. 봄. 대학의 봄. 코골에 감겨오 는 매캐한 최루가스로부터 시작되던 봄. 대학의 봄은 잔인하고도 찬란했 다.
유독 올해의 봄은... 내가 그동안 기만했던 봄을 한겨번에 확인시키기 라도 하려는듯 올해의 봄은 더 어둡 고 잔인하게 다가왔다.
눈 돌리는 곳마다 둘러쳐진 검은

이 아니다. 대학엔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이 있다! 그러더라."
너는 또 부시럭거리며 소주잔을 채 우고 있었다.

3학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예 정을 가졌었던 것들과 부딪치게 되는 걸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것들과 부 딴치게 될때마다 현실로부터 돌아선 나의 깨끗한 등어리를 느꼈기 때문이 었다. 군데로 하나씩 끌려가는 남자 애들이 내겐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남겨 주며,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싸 짊어지고 학교를 떠나갔는 지.
"그무렵 나는 너의 두뇌를 침투해 온 이상한 향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세균들은 나를 이상한 피해방상으 로 몰고가서는 방어적인 인간으로 나 를 만들도 있었다. 흰겨운 의무감을 내게 부과한 객관적 현실로부터, 그 의무감을 당당히 짊어지지 못하고 있 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로부 터 내가 상처받도 있다고 그 세균들 은 시그리게 떠돌아다녔다. 나는 언제 나 수제적인 자제로 몸을 움추리고 초조한 눈앞을 굽었다.

밤이면 젊음의 시버린 칼날로부터 난도절망하고 있는 내모습을 보고도 아찔하면 또 다시 아무일 없는 듯 새 수를 하고 밥알 몇 개를 주워 올리고 전철역으로 지루하 게 발을 놀리는 시 간들이 흘러갔다. 그 절망감에 대 켜없이 잔혹 앞뒤 도 없는 글발이 새 워졌다. 나는 나의 낯서장속에서 여러 인물을 잉태해서는 곧 죽어버렸다. 현실속의 내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정열적이기도 용기도 없는 초라한 젊 음들이었다. 내죽음을 대신해서 그들 이 죽어가고 있었다.
3학년은 2년의 시간보다 더 빠르 게 흘렀다.
"올해의 봄은 기억하기도 싫어!"
"....."
"하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거 야."
너의 말꼬리에 꺾히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봄. 봄. 대학의 봄. 코골에 감겨오 는 매캐한 최루가스로부터 시작되던 봄. 대학의 봄은 잔인하고도 찬란했 다.
유독 올해의 봄은... 내가 그동안 기만했던 봄을 한겨번에 확인시키기 라도 하려는듯 올해의 봄은 더 어둡 고 잔인하게 다가왔다.
눈 돌리는 곳마다 둘러쳐진 검은

유양목, 온통 숙연한 연기를 피어 올 리던 향년새. 대학에서의 갈등과 번 민, 이상한 피해방상들이 불감의 이복 으로 치유되던 시기였다. 나의 두뇌 운 불감의 벽 사이로 고개를 쳐드는

스듬히 열린 옥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이 방안의 어둠사이로 비집 고 들어왔다. 비좁은 옥실 세면대에 얼굴을 들이대고 몸을 구부린 빛바랜 건구아래의 암막한 너의 등.

부서져 내리는 너의 환한 웃음이 나 를 향해 흔드는 너의 손바닥에 부딪 쳐 더 멀리, 더 환하게 번져가고 있는 걸 나는 보았다.

여기까지 적어내려 왔는데, 여전히 허탈하다.
손바닥을 오무려 꼭 움켜쥐면 잡히 는 것없이 바람만이 빠져나간다. 그 러면 주먹의 손은 다시 맥없이 풀린 다.

난 요즘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순 례자 같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가 서는 지긋한 눈빛으로 힘을 주어 느 린느린 교정의 이곳 저곳을 걸이다닌 다. 학교의 구석구석에 새삼스런 감 정적 연막을 피우며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유난히 피딱한 문과대 건물, 공과대 건물과 학생회관사이에서 늘 어 선 햇빛은 미류나무, 내가 즐겨 사용 하게되는 사회과학대 건물 4층 화장 실의 낯익은 낙서까지도. 아마 그 이 는 구석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동안 흘러버린 선부른 나의 감성들 을 수거하려는 것일까? 어쩌면 눈에 띄지 않는 그 어느 구석이라도 내가 이곳에 존재했었다라는 그동안에도 미처 심지 못한 내 젊음의 어떤 증표 를 남겨두고 싶어서일까?
사만.
그 시간을 들어 놓는 구차함이 주 는 부끄러움이 날 약화같이 놓아주지 않는 것만큼 그 시 간들을 누구에게나 확인받고 싶은 미 련스런 욕구도 쉽게 떨쳐지지 않았 었다. 다행스럽게 도 이제는 어떠한 과장이나 허세없 이, 어떠한 위축됨

그 시간을 늘어 놓은 구차함이 주는 부끄러움이 날 약화같이 놓아주지 않는것 만큼 그 시간들을 누구에게나 확인 받고 싶은 미련스런 욕구가 떨쳐지지 않았다. 이제, 어떠한 위축됨 없이 현실앞에 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스무살 젊음의 죽음들.
학교는 연일 슬명거렸다. 중앙도서관 건물앞을 가득 메운 우리들을 보 는 내 눈앞에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 게 겹쳐져 나타났다. 그렇게 새롭게 젊음의 죽음이 부활되고 그 부활은 다시 신촌에서, 서울역에서 죽임당하 고 있었다.
눈물을 흘릴수는 없었다. 그 눈물 이 어떤 의미도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 눈물로 내가 가진 두려움, 내가 덮 어 쓴 겁테기를 씻을 수는 없었테니 까.
그 눈물로 상처받은 초라한 나의 사랑을, 내 젊음을 표현할 수는 더더 욱 없을 테니까..

"슬머신 녀석들의 등을 두드림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면 서 동지애를 느꼈었어."
나는 세면대의 등그란 구멍을 빠져 나가는 너의 고개를 쳐다보고 서있었 다. 정화처리되던 너무나 많은 사 랑과 실천이 필요한 찌꺼기들이었다.
"잘가."
"너두."
"나 근데 가게 됐어."
"가슴 떨바닥에서 아린하게 솟아오 르려는 아픔을 씹어부치고 친철히 나 는 말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꺼야."
"그래, 모두들 널 지켜 볼꺼야."
니가 가만히 웃었다. 푸르스름한 새벽공기가 차갑게 겨우 몸에 달라붙 었다. 비스정류장이 가까워오고 비스 가 왔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비스에 올랐다. 차창밖에서 니가 오레도록 서있었다. 너의 웃음 안면으로부터

이나 자학없이 현실앞에 나 자신을 내 보일 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주의 과중시계가 방금 일람시를 쳤다. 커튼새로 창밖이 뿌연게 밝아 오는게 보인다. 간간이 스레기무더기 를 치우는 청소부 아저씨의 비질소리 와 신문배달 소년이 잡는 자전거 브 레이크 소리가 백백하고 골목을 울리 며 지나간다. 이들을 걸이내고 아침 을 여는 소리들. 그렇게 아침은 신신 한 노동의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 이다.
머리가 조금 멍해온다. 나는 잠시 눈을 살피다가 일어나야겠다.
그때는 나도 이 이들을 걸이내고 아침을 여는 기지개를 펴야겠다.

소설 장려1석과 시부문 본상수상 자가 동일하여 장려2석을 신계함을 알립니다.

社 告

제6회 동대문학상 입상자 발표

개교 85주년과 동대신문 창간 41주년을 기념 하기 위해 제정된 본교 재학생 대상 '제6회 동 대문학상' 입상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입상자 명단

(시부)

◇본 상 : 진선묵(사범대 국어교육과 4년) '달래강'

◇장려상 : 박광수(문과대 국어국문학과 3년) '詩'

(소설부)

◇장려1석 : 진선묵(사범대 국어교육과 4년) '첫눈'

◇장려2석 : 임미라(사과대 사회학과 4년) '유예된 시간을 위하여'

(평론부)

◇장려상 : 이우호(사범대 국어교육과 4년) '뒤돌아보기와 바로보기의 괴로움-기형도의 詩에 대하여'

□ 심사위원명단

◇시 부: 이 형 기(시인·문과대 국문과 교수)

◇소설부: 한 용 환(소설가·사범대 국교과 교수)

◇평론부: 홍 기 삼(평론가·문과대 국문과 교수)

□ 시상일시

1992년 1월 6일(월) 오전11시30분 총장실

*입상자는 시상 당일 오전11시까지 본교 학생회관내 동대신문 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제 6회 동대문학상 평론부문 수상작

평론부문 정려상

I. 시작하며

시인 기형도 80년대 우리 시단의 작품과는 거리가 먼 독창적인 시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시세계는 생존주의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시가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기이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세계가 갖고 있는 특이함이 기존의 우리 비평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사후에 나온 몇 편의 유행에서 그의 시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집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주 1)

그렇다면 기형도 시가 갖고 있는 독창성과 그 현대적인 시세계는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대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기형도의 시는 80년대 우리 시단의 주요 창작방법이었던 역사주의적 또는 사회과학적 창작방법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개인사적(個人史的) 체험, 그리고 사회현상의 날카로운 해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의 시세계에는 주2) 우울한 유년의 체험과 일상 속에 존재하는 절망과 공포의 심리구조,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안스러움, 그리고 사회현상 속에 무력해 가는 실존적 절망 등이 그만의 특이한 시어와 고도의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다. 이때 기형도에게는 두 개의 피로움이 남는다. 하나는 유년의 체험을 기억해 내면서 느끼는 근원적 피로움이고 또 하나는 다 마치지 못한 청년기에 느끼는 세계와 나 사이에서 파생되는 불화에서 오는 피로움이다.

기형도의 시는 바로 개인이 세계로 이어지는 관점의 변이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개인과 세계와의 불협화음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영원히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 되어 버린 육체적 무력감이 그를 과거의 체험 속에 몰아넣고 만다. 그러나 그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 그가 웃으며 견뎌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내기 놓는 것이 아바나의 몫일 것이다.

이글은 바로 그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이 글과 같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성 시인이 고쳐내던 인생의 괴로움과 상처를 발견해 내고 그의 시가 추구했던 존재 의미를 풀어냄으로써 그 문학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되돌아 보기와 상처받은 존재

일반적으로 시에 있어 지나간 일 에 대한 회상은 상상력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우기 시를 일반적으로 상상력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기형도 야 기억은 상상력을 활동케 하고 영향을 공급하는 자료 보존의 가치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형도의 시에 있어서는 기억이나 추억은 기본적인 모티브로 존재한다. 그에게 있어 회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전형적 상황인 것이다. 즉 자아와의 통시적인 통일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기형도에게 추억은 비결같은 고향과도 같은 것이며 피 흘리며 피로워도 경쟁해야 하는 당위적인 것으로 개인적화되어 있다.

그의 시적 공간에 있어 과거의 의미는 결국 자아와의 해후, 더 나아가서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공간과의 해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기형도의 시적 태도, 즉 되돌아 보기의 태도를 발견해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되돌아 보기라는 것은 그가 겪어 온 과거의 진정한 고통과 좌절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초극하려는 경직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의 시가 열린 세계로 진출한다기보다 그의 삶의 원형으로 회귀하여 그 속에서 상처받

기형도 시에 대한 고찰

인 존재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친절히 속세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일 같은 발소리
타타타
안 들리네, 어둠과 무서워
공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밤에 혼자 열려도 울적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빛목
(엄마 걱정) 중에서

실에서 되돌아 보고 있는 자아에게
햇빛을 살았다는 꽤 아픈 자각을
심어 준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의 기억은 가난에서 파생되는 내면의 상처와 연결된다.
선생님 가정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진 방죽을 따라 걸어 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의 율리우스
상장을 생각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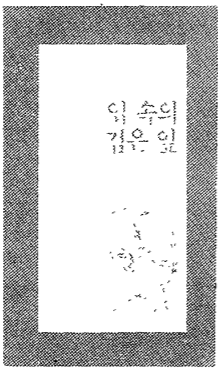
봄은 또다시 절정된 꽃술을 펴고
잔뜩 눈물 행우며 유령처럼 나
는 꽃을 쬐는다.
(나리나리 개나리) 중에서

이러서 겪은 누이의 죽음을 회상
한 이 시에서 죽음이란 결국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강박된 폭력파도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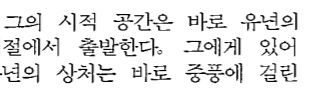
그때까지 나는 사람이 왜 얼어
는지 또한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
지 못했다.
(삼촌의 죽음-겨울관화4)

이러한 죽음과 인간 실존의 유한
성은 그의 시 도처에서 그를 괴롭
히고 있다. 기형도에게 있어 인간

기형도의 또다른 세계인식, '바로보기'



기 형 도
△1960년 2월 경기도 연평 출생
△ 84년 중앙일보 입사
△ 85년 동안일보 신춘문예에 특
'인개'가 당선되어 문단
에 등장
△ 89년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발간
△ 89년 3월 사망



그의 시적 공간은 바로 유년의
시절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있어
유년의 상처는 바로 증풍에 걸린
아버지, 그리고 삶에 발버둥치는
아버지, 산업전선으로 떠 버려 간
누나, 힘들어서 느끼는 철저한 소
외감이다. 그 소외감의 근본적 원
인은 아버지의 증풍으로 인해 몰락
해진 가난한 가정이다.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 어머니는 '열무 삼삼단
을 이고 시장'에 간다. 여기에서 파
생되는 '찬밥처럼 담겨' 있는 한 소
년의 외로움에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고 몰락적인 가난보다 그에게 더
깊게 인식되어 있는 가난의 상처는
바로 '상처를 접어 거친에 종이베
로 피우는 내면의 괴로움에 비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공부해 잘해 상
장을 받아도 증풍은 아버지, 경사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베로 피운 일을 누구에
게도 말하지 않았다. (위험한 가족
-1969) 중에서

그의 시에 보이는 '가난'이란 형
체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전해진
다. 이시의 전반부에 나오는 '스런
지마더 구멍이 송송난 잠바' '열두
리서 공부하다가 코를 풀면 언제나
결명이가 물어 나왔다' '죽은 멘드
라미처럼 빨간 내뿜이 스웨터 밖으
로 나와 있고' '씩씩뽀뽀가 나는 누
이의 옷' 등에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고 몰락적인 가난보다 그에게 더
깊게 인식되어 있는 가난의 상처는
바로 '상처를 접어 거친에 종이베
로 피우는 내면의 괴로움에 비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공부해 잘해 상
장을 받아도 증풍은 아버지, 경사

실존의 기본 조건인 존재의지는 처
음부터 운명론적 시련에 봉착한다.
따라서 삶의 안정으로 이르는 길
은, 즉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
에서의 탈출은 처음부터 막혀 있
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탈출을 그
는 시도하고 있다. 즉 상처받은 존
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타인과
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는 자신의 영향을 사랑하는 사람에
게 의탁하려 한다. 이것이 가난과
죽음이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
의 의식의 한 모티브에 찾아오는
사랑의 회상이다.

그날 마구 비틀거리는 겨울이었
네
그대 우리는 섞여 있었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
시켰네 -중략-

그르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
있었네 -(그집 앞) 중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섭
을 통한 실존의 의미 획득과 상처
의 회복은 그 어느 하나의 가능성도
보여 주지 못했던 안스러움의 기억
만 남게 한다. 그것은 '나의 잘못'
에서 파생된 인과론적인 상처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을 목말릴 하며'
의 불간헐적인 삶이 그에게 던져진
다. 그 삶에서 그는 절망과 괴로
움과 두려움의 대상을 상실하고
그 대상의 부재의 현실 가운데 고
립되어 있어 세계와 도저히 화해할

데서부터이다.
그러한 기억들은 나이를 먹어감
에 따라 분열되고 소멸되기 마련이
지만 성인의 의식에 기억으로 응
답되어 그 결과 본능적인 체험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본능적인 체험에
서의 상처는 곧 되돌아 보기에 의
하여 자아의 통일성이 회복되고 자
아의 재구성이 가능해짐을 시사한
다.

기형도의 되돌아 보기라는 작업
이 가져다 주는 상처를 -가난, 무
력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안스러움, 햇
빛을 살았다는 아픈 자각감- 등은
자아인멸을 재구성하던 기형도는
그 기억의 파편들을 비극적 실존
인식이라는 의미있는 패턴으로 봉

심사평

선자(選者)에게로 넘어온 문학
비평중에서 이용호군의 (되돌아
보기와 바로보기의 괴로움)이라
는 글을 가려 뽑는다.
이 글은 약관으로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작품세계를 분석한 글
이다. 다른 글에 비하여 문장력
이나 문학전반에 대한 기초적 능
력이 드러나 보였고 시를 읽어내
는 솜씨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에 대한 선자
의 대체적인 소감이다.
이 글은 유년기를 포함하는 시

인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로 명
명하고 시인이 처한 현실의 이해
를 (바로보기)로 부른다. 기형도
의 시가 살아온 날로부터 받은
체험과 상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수용의 고통을 나타
내는 경우도 있다는 분류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들과 현실수용의 고통 사이
를 이어주는 능력이 명확하지 못
하다. (기억이나 추억에 대한 회
상)처럼 현대문예 드리는는 표현
이나 구실상의 오류들이 이 글의
결점으로 남는다. 정진 있기 바
란다.

홍 기 교
(문과대 국문과 교수)

의 의미가 거세당하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참된 실존의 의미를 만들
어가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세상은 온통 크레올 냄비로 자리
잡는다 누가 떠난들 죽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살아 있네, 누구든 살아 있네.
(비가-2-봄은 날) 중에서

우리는 기형도가 이 시대가 강요
하는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정적하
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를 받
진한다. 그 받아들임의 길을 통해
기형도는 초극의 의지를 담담하게
표현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형도는 이 길에서 쓰러져서 다시
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제 그는 괴롭지 않다. 새로운 출발
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IV. 맺으며 (존재인식의 괴로움)

일찍 세상을 등진 29세라는 그의
나이만큼 시인 기형도가 절절한 인
생의 기간은 짧다. 그러나 짧은 인
생을 살다갔으면서도 그가 남긴 한
편의 시집에 담겨 있는 시세계는
너무도 넓어 보인다. 그는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자신의 생을 살
았다.

그는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
려웠던 80년대를 살아 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삶을 바라보고
자 했던 기형도는 한 시인으로서
견지했던 태도도 현실이 보였으
면 끝까지 치열하게 추구했던 것은
바로 보기의 자세였다. 따라서 그
의 시세계는 과거의 체험과 세계인
식 그 축을 이루게 되는 때 이후
끝을 그려낸 시정으로는 용서할 존
재가 못 '땀'과 같은 것이다. 그들
이 몰아가려 하는 고향은 그러나
조, 서울생활에서 그에게서
기형도는 편안한 안식처를 빼앗겨
있었던 원인이 되는 세계로 그의
눈길을 돌린다. 이것은 그가 처한
당대의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그러
나 기형도는 우리 세대의 삶이 고
통받는 현실에서 또 하나의 상처를
입는다.

조치원에서 고통학교까지 마쳤
조. 서울생활에서 그에게서
내 삶에 있어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
(조치원) 중에서

조치원으로 귀향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 기형도가 바로 보
았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문명
사회를 등지고 귀향하는 자에게 그
생활이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
점'과도 같다는 괴후의 인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몰진화된 도시로부
터 고향으로의 줄거는 돌아감을 기
대했던 그들이 꾸는 꿈은 '땀'과
같은 것들이었다. 즉 내부로부터 단절
고립, 소외의 장막을 벗고 일방적
인 폭력을 행사하는 세계로 뛰어드
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존재의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에게 있
어 세계의 힘은 그의 우위에 서 있
다. 무지 계획적인 힘의 행사를 하
고 있지만 기형도는 여기에서 세계
의 부조리, 비논리적인 면을 파헤

바로보기-절망의 체험을 통한 현실도전 시인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회상-되돌아보기

아버지, 불쌍한 내 장난감
내가 그린, 불그림 아버지
(나 큰 동안이 외지-겨울관화
7) 중에서

여기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인
의 눈길을 따라가보면 마치 영화나
T.V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그
의 시에서는 이러한 통시적 이미지
가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수염
부성이 투명한 사슴' '불그림 아버
지는 장난감 같은 아버지'는 무슨
운명의 칼때처럼 그의 시를 떠나
고 못하고 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물
락한 가정의 총체적 상징인 것이
다.

장마비, 아버지 얼굴 떠내려 오
신다.
유리창에 잠시 붙어 입을 벌린
다.
나는 햇빛을 살았다. 살아서 햇
빛이었다.
우수수 아버지 지워진다. 빗줄기
와 몸을 바꾼다. (불 속의 사슴) 중
에서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현
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었다. 부지런히 읽고 쓰는 가
운에게 나는 내 목소리를 할 수
있었고 세상은 내가 할 몫
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숙한 글쓰기에 격려를 해 주
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동대 신문
사에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
상 내내 나에게 글쓰기의 체험
절을 가해 주신 소설가 정형기
은사님께도 감사 드린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 감사하
실 것이다. 지어낸 개인 아버지
까지도 아마 이리다만 환한 웃음
을 지으실 것이다.

하러 나가신 어머니, 돈 벌러 간
누이들의 그 지친 삶 속에서 차마
내놓지 못했던 슬픈 기억을 되돌
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을 더듬어 보는 그의 시적 태도는
원망도 그리움도 아니다. 기형도는
그 가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담
담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에게
있어 가난의 기억은 감추고 싶은
처부도 아니고 고치고 싶은 환부도
아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시적 태도에 참다운 아
름다운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그
의 시는 이렇다.

그의 기억에 있어 또 하나의 괴
로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죽음
에 대한 공포이다. 그 공포는 인간
의 실존적 유한성에서 오는 본능적
인 상징인 것이다. 여기에 이르
고 그의 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모한
다.

이느 날의 잔잔한 아픔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접어 갔던 그 무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중략)

수 없는 극한 자기 분열을 체험한
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험들을,
사물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소
외시킨다. 그리하여 절망을 느끼고
그에 비례해서 분노하고 공격하고
반항하며 때로는 자아를 부정하
고 한다.

...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
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오래된 서적) 중에서-

구름 밑을 천천히 쓰다니는 기적
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
렀구나.
(절무는 나의 힘) 중에서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잊어버린 지
금
나는 내 삶의 일부본도 알지 못
한다.
(10월) 중에서

그에게 남아 있는 상처의 기억은
삶의 회의와 부조리로 이어져 드디
어는 비극적 실존론적으로 귀결된
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검은
페이지' 대부분이라는 아픈 자기
반성과 절망인 것이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구름 밑을 천천히 쓰다니
는 게'였다는 최후의 인식이다. 그
러기 때문에 그의 생은 '불행'하며
그것은 절망으로 가득찬 자신의 삶
을 일부본도 알지 못하는 극한 분
열화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자기
파괴까지 자기 부정은 객관 세계를
상실하고 진정한 자아도 상실해 보
면 완전한 소외에서 온다. 결국 그
에게 있어 인간의 삶이란 결국 경
험의 파편의 지속이요 자아의 파편
의 집합일 뿐이다.

기형도 시의 출발점은 바로 유년
의 오해되고 회피한, 그러나 단절
하고 생생한 기억들이 그의 시 세
목처럼 '겨울관화'가 되어 인식되는

지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세계에 도
전한다. 그는 여기에서 기형도의 또
하나의 시적 태도, 바로 보기의 태
도를 발견한다. 이때 바로 보기는 단
순한 대상인식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형도가 처해 있는 세계
상의 정직한 파악인 것이며 단순한
응시의 태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바로 보기는 그가
몸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진정
한 고통, 좌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력한 절망들이 떠나지 못함을
통하여 현실을 초극할 수 있는 정
직한 파악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못 생각하면 그의 주관적예약을 거
세하겠다는 의지의 천명무요 이해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상부적인
대상인식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자
기 나락으로의 태도이다. 그러면서
기형도에게 바로 보기라는 것은 이
러한 주관적 태도를 통해서 인식된
현실 공간 속에서 그 허위와 가식
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근원적 자
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
로 '안개'에서이다. 안개가 갖고 있
는 일반적인 의미를 기형도는 새로
운 시각으로 해체한다.

가슴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울위로 절망이 있는 얼굴들은 모
두가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밝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
역이기 때문이다.
(안개) 중에서

급속한 산업사회의 한 영면이라
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인간소의 현
상은 안개라는 하나의 장막으로 형
상화된다.
안개에 익숙해진 사람들 -다들
아닌 희롱회피하고도 권리회피하
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안개가 끼지 않은 날이면 '모두가

주

- 1) 원재길, '대화적 울음과 극적 울음', 세계의 문화 1989 봄호, p437~442.
- 2)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시집, 문학과 지성사 1989, p139~142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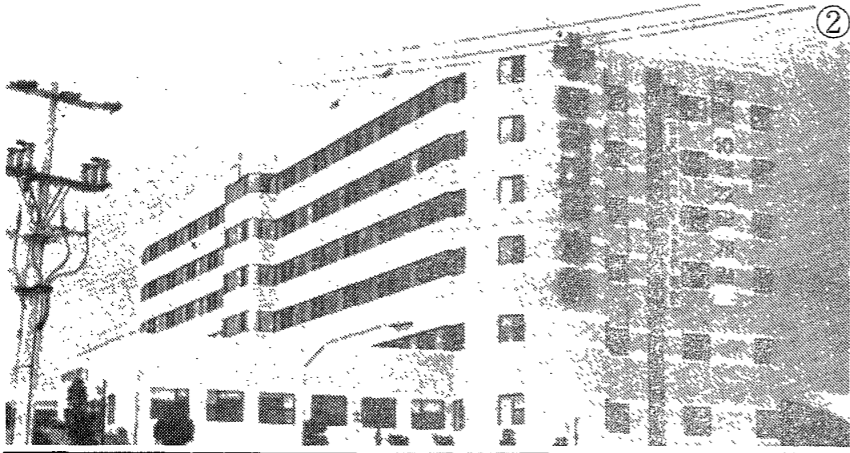
알림

지원편견상 일부내용이 삭제되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고하 하시는 분은 신문사 연락
바랍니다.



동대 신문사에서 연락을 받은
남은 마칠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날이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허방

이용호
(사범대 국어교육과 3년)



③ '학교채'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1.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동국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학교채'를 후원하여 주실 분을 위하여 특별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공적으로 85%는 낮은 동국대학교는 이제 고 1학년부터 21세기까지 대비하여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및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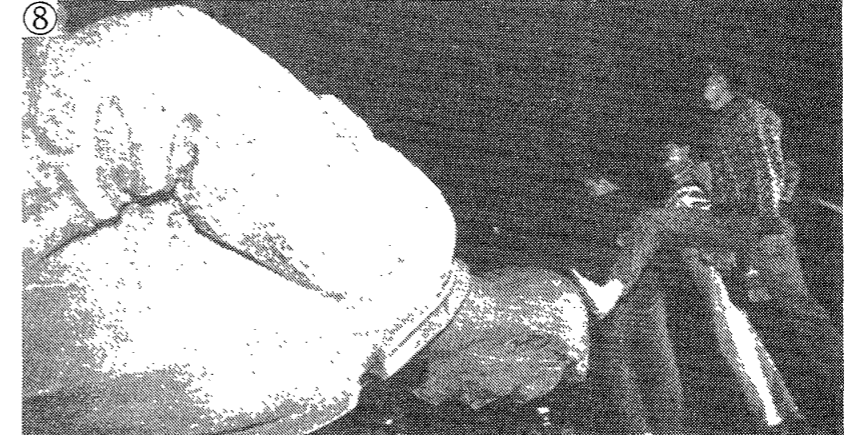
1992년 1월 1일
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민갑
총장 민병천
부총장 홍정철



저물어 가는 91년 한해는 여러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슴쓰였던 만큼 자기반성과 강인함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92년의 버거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간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들을 우리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진의 92년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판봉하기를 염원한다. (편집자)

사진으로 본 91년

- ① **총장·이사장 선임**
총장 선출문제에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민병천(정치외교학과)교수가 총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 11월 25일 제113회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오복원스님이 재선임됐다. 학교의 어른을 모시는 매우 중대 사업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체 즉 학생, 교수, 직원의 참여없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학교에 대한 치밀한 전방이 부재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
- ② **경주병원 개원**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하여 질병없는 극락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경주캠퍼스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지난 10월22일 개원됐다.
- ③ **학교채 발행**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우리학교는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을 발행 조달하고자 91년초부터 학교채를 한 결과 등문 및 학부모의 참여로 최근까지 5억여원에 이르는 채권이 매입된 바 있다.
- ④ **고교엔 학원안정화 대책**
지난 6월9일 정원식 총리에게 계란을 던져 가열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정을 뒤엎어버린 '6·3 외대사건'. 전교조 탄압, 학자투의 모범을 세우던 세종대의 집단유급등 가 공할 민주세력 탄압을 격렬하게 일삼던 정총리가 또 외대에 등장하여 순수하고 정의감에 넘치는 학생들을 패권으로 단속에 전락시켜 버렸고 이예따라 '학원안정화대책'이 세워져 학원탄압의 빌미를 마련했다.
- ⑤ **황필호교수 재임용 탈락**
철학과 황필호 교수가 지난 3월 25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재단에 의해 교수의 자리가 박탈되는 전횡의 시작으로 출격을 던졌다.
- ⑥ **불타는 오월**
명지대 총학생회장 구술을 위한 교내 집회에서 전경의 쇠파이프에 맞아 절명한 우리의 어린 학우 강경대 열사로 절하된 피의 5월. 이 사건에 분노한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철씨들이 분신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은 눈물과 아픔을 식여야 했고 '살아서 싸우자'라는 부모들의 절규가 나라 안을 흔들었다.
- ⑦ **서대기련 방북취재 추진**
8·15법민족 대화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는 방북취재 공동기재단을 구성, 방북취재를 추진했다. 정부의 청구단 일화 논리를 최대한 이용해 심사시키려 했으나 최초의 남북 학생의 만남'으로 그쳐야 했다.
- ⑧ **소련방 해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세계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던 소련이 지난 22일로 7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체됐다. 그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표면적인 세계화해분위가 마련됐지만 점점 악화되는 소련내 경제사정으로 인한 소련국민의 불만족함이 그 주요인으로 보인다.
- ⑨ **강의평가제 실시**
'강의평가제'실시의 움직임이 우리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것은 수강자의 평가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보다 질이 높은 교육을 위한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⑩ **남북 합의서 채택**
지난 12월 13일 총 5차례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 끝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것으로 통일을 향한 태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재개될 회담에서 상호 성의있는 노력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p>경수사</p> <p>주 지 김보경 신도 김일동</p> <p>☎(011)411-1100</p>	<p>동학사</p> <p>주 지 송성원 대 중 김일동</p> <p>☎(011)411-1100</p>	<p>도선현성사</p> <p>주 지 박현성</p> <p>☎(011)411-1100</p>	<p>천축형사</p> <p>주 지 신도일</p> <p>☎(011)411-1100</p>	<p>법문사</p> <p>주 지 황법준</p> <p>☎(011)411-1100</p>	<p>제24교구본사</p> <p>주 지 김문</p> <p>☎(011)411-1100</p>	<p>제22교구본사</p> <p>주 지 김문</p> <p>☎(011)411-1100</p>
<p>상원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화계정수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봉황명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운문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법안정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청연민사</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p>약사포교원</p> <p>주 지 김일동</p> <p>☎(011)411-1100</p>

16개 단면

동국발전 토대 마련과 새 정치시대 개막의 과제

▲한해동안 사건현장마다 찾아다니며 독자들에게 생생한 보도를 위해 애쓰신 기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한해는 어느때보다 학내외로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내사건을 살펴보면 교수직선출총선출로 지난 3월 민병철총장이 취임했고 지난 11월 이사의 반장일치로 녹원이사장이 재임되면서 개교100주년을 내다보는 분교로서는 실제적인 장기적 학교발전계획을 내오는 책임있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학내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외에서는 5월 강경대역사치사건으로 인한 비상사국과 계속되던 부경이 외대 정원식총리사건이후로 침체된 학생운동의 모습을 보였고 8월에는 범민족대회가 치러지면서 어느때보다 남·북한 통일무드가 무르익었으며 이에 따른 많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총학생회나 대학원학생회 등 학생회계는 굳건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온 반면 교수회나 직원노조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침체된 사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내 각 주체별 올해 진행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92년도 사업진행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회는 학기초에 철학과 황필도 교수가 제안용에서 탈락된 채

- ◇참석자
- ◇서울캠퍼스
- 남철우 편집장
 - 김영란 여론매체부장
 - 최유운 문화1부장
 - 조인환 취재1차장
 - 이병민 사회부차장
 - 이경애 문화부차장
 - 박수로 기자
 - 박기철 기자
 - 조용수 기자
- ◇경주캠퍼스
- 전미영 기자
 - 차욱경 편집부장
 - 이진호 취재2부장
 - 이형숙 문화2부장
 - 김윤규 취재2차장
 - 박선경 기자
 - 김인용 기자
 - 안은주 기자
- ◇일시; 9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본사회의실

이자리에서는 한해동안 기자들이 사건현장을 뛰다니면서 느꼈던 91년도 평가와 92년도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총장과 이사장이 선출된 학내상황과 과정, 또 이에따른 이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9년 9월 부경임사건 이후 총장선출문제가 난항을 겪어오다 91년에는 교수회 직선으로 2인의 후보가 선출된 이후 재단이사회에서 민병철총장을 선임했고 지난 11월에는 재단내 이사들의 압력 속에서 다행히 이사 전권 반장일치로 녹원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임되었습니다.

장·단기 학교발전 계획 수립으로 새 도약기를 다지길 일부 재단권한 총장위임 통한 유기적 사업진행 모색 시급 경주부총장 재정위원회 참여로 경주 의견도 수렴해야

한해에 학교운영을 책임질 총장, 이사장이 함께 선출됐다는 것은 앞으로 재단과 학교당국이 서로 협조하는 동국발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 특히 그간 재단내에서 거론돼왔던 제3캠퍼스 설립등의 급속적 확충 사업들이 앞으로는 더욱 구체화되고 재원, 장학보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중장이 91년초 취임하면서 진행했던 일의 정도와 전망을 찾아 보면 먼저 복교에는 도합하지 못했지만 동국발전은 위한 학교제 발행, 방학중에 몇몇 교수원리가 아다르 집과 남산제모습찾기로 역대 있었던 동국관측동, 동국발전 권면안이 구체화됐고 경주병원 개원, 경주캠퍼스 기초과학관 기공등 나름대로 학교발전은 위한 사업에 힘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장직선지, 동국가족대학의 행사를 통해 대외적 학교홍보에도 일정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부의 평입니다. 그런가하면 실질적 발전사업이 되지 못하고 너무 외부의 목소리를 의식한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학교당국뿐만 아니라 교수회, 노조, 대학원학생회, 총학생회등의 학내주체들도 이러한 학내상황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기 사업학교법 남용사례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교수회내에 황교수의 복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평교수협의회쪽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을뿐 교수회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회가 학교경영과 학사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논의와 교수회 활성화 방안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수회 활성화를 위한 교수대의원회 구성이 1학기 교수회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수문제가 별 성과없이 끝나고 2학기에 들어서면서 교수회 총무교체등 내부의 문제로 사업이 침체되고 황교수복권에 관한 성명서 발표조차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교수회의 학내 위상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노조는 작년까지 민주적 총장선출의 주제로 나서는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올해는 10월 보직위원회에 있어 관리직장의 교수임명에 대응한 행정의 전문화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습니

다. 직원노조 각부서별로 학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시켰으나 재단혁신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사항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원학생회도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 한해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등록금 투쟁을 비롯한 학원자주화투쟁을 평가해보면 학우들의 지향과 요구를 모아내기 위해 1인1요구안에 근거한 총회투쟁방식을 채택했으나 16%의 인상이 결과로 남아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캠퍼스 등록금 투쟁은 서울캠퍼스와의 연대투쟁을 진행시켰으나 일반학우들에게 기본적인 홍보

이 여학생회 총련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24대 총학생회에서는 학생회신화에 여성부신설이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의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 총학생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학내 여론입니다.

▲단과대, 과학성회, 그리고 여타 기구들을 살펴보면 단과대, 과학성회는 별 무리없이 활동을 진행시켜 왔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반해 여타 학생특별 자치기구인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등은 제 역할을 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학부위는 회계계와 사무처리의 미흡으로 총학생회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다양한 학생식당경영, 다량한 2층 보리수 환경 개선등으로 일정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졸·출·위는 엘리트계약을 둘러싸고 시일에 차질을 빚었으며 동·연은 뚜렷한 사업 없이 무성의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나타났던 조직, 사업체계의 부실을 극복하는 것이 이

가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학내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재단의 권위가 어느때보다 강화되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재단의 철폐에 악용됐고 황필도교수 재임 용탈락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럼 올해 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와 내년도 재단혁신 부분을 살펴보

고 더불어 조계종분규와 동대발전에 대해 살펴봅시다.

—재단혁신의 문제는 올해 총학생회가 재단혁신투쟁을 문제시 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다보는 분교의 발전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바라보면 동대발전은 재단이나 학교·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문을 포함한 동국인 전체가 짊어질 점이라 생각하고 그만큼이 전체의 걸로 짊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제3캠퍼스 설립, 동국학술연구문화센터(가칭) 건립등의 계획확보에 동국인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동국발전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특히 경주병원 개원등에 있어선 진전의 행방등 재단행정이 베일에 싸인채 과묵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캠퍼스에서는 재단과의 논의 동료, 부총장이 재단 이사회사 재정부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던 합니다만 근본적인 재단혁신의 길은 원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록·정리=박수로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p>佛 제11교구본사 주방 조실 대중 일동 國 월산성림寺</p>	<p>銀 제10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海 최규필寺</p>	<p>桐 제9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華 손현오寺</p>	<p>麻 제6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谷 허해묘일유업寺</p>	<p>法 제5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住 유월산성림寺</p>	<p>龍 제2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珠 서정성자서정곡만승대寺</p>	<p>曹 지할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溪 신대지도중진일일현동동근寺</p>
<p>松 제21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廣 조계총림보통현회고당성진寺</p>	<p>華 제19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嚴 최일종원寺</p>	<p>白 제18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羊 조이학서동능응寺</p>	<p>孤 제16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雲 송근일寺</p>	<p>通 제15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度 방장월태일應下寺</p>	<p>梵 제14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魚 비일일파寺</p>	<p>海 제12교구본사 주방 대지 대중 일동 印 장법일동진性寺</p>

그러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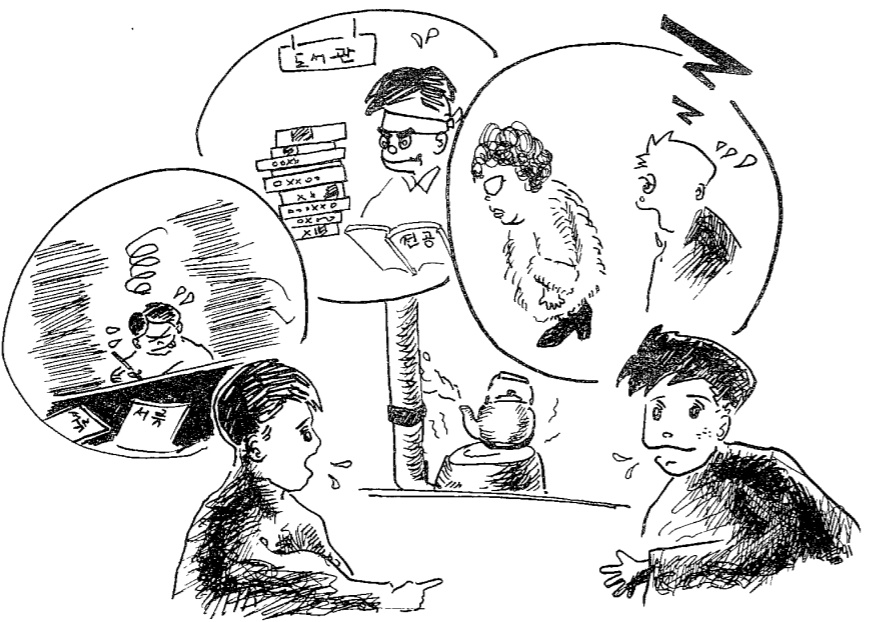
“뭐라고 했는데?”
“김일성 할, ‘야 이 세발놈 아! 너 PD지?’ 그랬다는 거야”
지우의 대답에 모두들 꽤 재미있어하는 얼굴들이었다. 지우는 다시 말을 이었다.
“농담은 이 정도쯤 돼야지. 최불암 얘기 같은 건 별로 웃기지도 않잖아? 자 이제 농담따 먹기 그만하고 사는 얘기나 하자!”

해서 돈 꽤나 주는 줄 알았더니, 고작 심심만원? 야 차라리 과외 판되라!”
에초에 돈이 공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과외비가 형편없다는 얘길 들으니 지에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러더니 지에는 교편잡기 전에 벌써부터 돈벌레가 되면 어쩌나구 마음에도 없던 말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래, 너 혼자 용해. 나는

“너는 뭐하고 사냐? 공부하는 거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것 같고...”
“짜식, 또 전공얘기가 하고 싶나 보구나? 전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그걸로 밥벌이 먹고 살 필요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학원다니는 거야.”
규성이 대꾸했다.
“무슨 학원?”
“응, 편집학원. 언론이 좀

있어?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그동안 뭐 했나 싶다. 너처럼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방학해서 계속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하긴 했는데, 임대날짜를 막상 받고 보니까 머리에 안들어 오더라. 하지만 뭐, 아직 보름이나 남아 있는데...”
원래 내성적인 그였지만 뜻밖의 얘기에 모두 섭섭하고 놀란 표정들이었다. 순간 지에가 입을 열었다.
“그게 잘 생각했어.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보다 군대에서 고민하다가 새물계 시작하는 게 낫지. 아직 시간 있고 오니가 이별주는 차차 생각하고 우리 다른 얘기나 하자!”

방학동안 펼쳐지는 우리 학우들의 모습이 여기에



모두들 흥건히 취해있지는 않았기에 분위기는 쉽게 바뀔 수 있었다. 한 잔 들이키고는 지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과외란 거 꼭 돈 때문만은 아니잖나? 가르치는 놈이 형편없으면 괜히 기분 나쁘거든. 그런 데 얼마전에 과외 갔더니 내가 가르치는 녀석이 수학에서 백점을 맞았대. 그래서 아주머니가 소꿉테리고 가서 구두를 사주었는데, 그아침, 글썽 50퍼센트 깎아서 백만원짜리 옷을 고르는 거야. 유썸처럼 했지 만 헤어지기 전에 과외비 조금 올려줄 수 없나니까 뭐 좀 남편이 불경기라서 이만저만 어렵은 게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거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비싼 옷을 사입니? 다 캄기가 막혀서...” 듣고있던

돈벌레구...”
비꼬는 듯 해도 악의는 없는 민정의 대답이었다. 민정 또한 과외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용돈이 공해서 하던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용히 술만 마시던 규성이 자신의 뒷두리를 풀러는지 순간 환승을 토해냈다.
“유... 나는 뭐냐? 할 일 없어서 도서관에서 틀어박혀 공부나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돈이 나오진 않나 재미 있길 하나?”
“야, 공부야 차라리 낫지, 나처럼 맨날 똑같은 단순노동 해봐라! 아이구 소리가 질로 나울걸?”

지 않아서 전공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 비록 전공 공부 많이 못했어도 기본 나쁘더라”
규성은 미소를 짓더니 다시 대꾸했다.
“짜식, 이제 전망까지 세우고 많이 발전했구나!”
규성은 말을 마치더니 반쯤 남아있던 맥주를 다 들이켰다. 그런 규성의 표정은 괜히 실감했다. 뭔가 곱씹어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나 군대간다”
규성의 얘기에 민정은 장난으로 대꾸했다.
“그래, 졸업하면 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 곧 입대해”
규성의 말을 듣고 그들은 놀랐다. 참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자 지우가 연성을 뉘뉘며 말을 꺼냈다.
“아! 너 그동안 왜 말이 없

“...비록 사회에 나가서 무척 혼란스러워도 너희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양심만은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것은 편견이 없는 것이어야 하구”

“이제 난 남았다. 지에는 교편잡으려고 공부하며 과외까지 하. 아마 지에 나중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거야. 그리고 민정이나 형진도 나름대로 전망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규성이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복학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가지 하고픈 얘기는, 비록 사회에 나가서 무척 혼란스러워도 너희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양심만은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것은 편견이 없는 것이어야 하구...”

“너희들 뭐하나? 오랜만에 먹는 술인데, 취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 풀어버리자구!”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작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저녁엔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면 그것은 벌써 ‘어제’의 태양이 아니듯 오늘의 우리들 또한 내일의 우리가 아니다. 오늘을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오늘 저버린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면

“너, 과외비가 얼마래?”
“응... 심심만원...”
지에는 조금 결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민정이 불렀다.
“뭐, 심심만원? 그거 너무하다. 난 또 삼십씩이나 간다고

나 다름 없었다. 공유일은 쉬고 토요일엔 2시 정도에 업무가 끝나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아니라 규성이 그에게 얘기를 던졌다.

“이 회독집이 각 사찰의 인도회나 대학의 불교학부 등에 보급되어 타 종교의 성구와 같이 우리 불교도 ‘법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규성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1920년대 말부터 유치진의 ‘마의태자’, 서정주의 ‘영원의 미소’를 비롯해 신문



퍼지(fuzzy)이론의 도입

유시규 (사범대 수학교육과 교수)



머칠전 귀가길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다. 청취자들에게 음악선정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한 청취자가 “이런이름은 꿈을 먹고 살지 못해, 현재 성인이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요?”라는 농담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 나왔다. “글썽요, 우리 신창국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음악이 끝난 후에 진행자는 “우리 성인은 현실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라고 답하였다.
유년기의 유아들은 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호기심이 왕성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상이 무엇이든, “내가 해볼게”라면서 가능성은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이것에 반하여 성인들은 미리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즉 사고로부터 행동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므로 본래 사고란 정신적인 행동인데 반하여 행동은 육체적인 사고이다. 그 뿌리는 공통이라고 하여도 좋다. 그러나 행동과 사고는 같은 것인가 하면 그리하지도 않다. 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한적이지만, 발달된 사고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적이기도 하다. 행동을 옮기는 현실의 신체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지만 두뇌의 활동이라면 뜻밖의 아니 몇만리도 단숨에 자유롭게 왕래가능하다. 그러므로 행동은 유한적이며 현실적이지만, 사고는 무한적이며 초월적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대립관계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요즘 매

스컴에 우루카이라운드 문제, 농산물개발문제 부각되어지고 있지만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쌀은 우리 중앙인에게 있어서는 주식이며 밀은 부식에 이며 밀은 주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주식과 부식, 연속과 이산,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은 모두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 위의 어떤 예를 보더라도 그들사이에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연결된 고리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은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속한다. 그 전쟁의 와중에 흑백논리를 알게 된 뒤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는가는 역사야 증언하고 있다. 흑자들은 흑백논리를 가장 앞세우는 이들이 수학을 전공하는 자를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최근 수학교 퍼지(Fuzzy)이론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흑백논리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교통신호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밤11시 이후에 그물망을 쳐 놓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마치 한라산 토끼를 포획하기 위하여 수십만마리의 사냥개를 풀어놓고 사냥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단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하여 정익 몇년, 면허 박탈, 벌금 몇백만원, 면허정지등을 심판하는 것은 도마위에 생선을 올려 요리하고 맛도맛도 자를 짓기만을 결정하는 요리사와 무엇이 다른가?
절단 이기주의와 흑백논리를 앞세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은 비단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교수사회에서도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일들은 누구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조와 방인보다는 자제와 협조로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내일의 중극을 기억할 수는 없는가?

한글불교학곡선집 전 8권 완간한 김흥우 교수를 만나

지난해 ‘한글불교학곡선집’ 전8권을 완간한 한국불교연구국의 활성화를 기여한 불교 김흥우(연극영화과)교수를 만나 보았다.
91년도가 ‘연극영화의 해’였던 만큼 불교종교대학원 불교에서 불교학곡이 정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교수 자신은 “몇 년전부터 포교원이나 각 사찰 청년회 등에서 불교학곡을 의뢰 받더니 문득 이것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작업의 규모가 워낙 커서 일을 못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이런 책을 지을 때도 문화공간을 내려놓아 할 때입니다”라고 젊은 스승들의 불도를 닦는 곳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교화사업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불교가 더욱 위숙한 모습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문화사업에의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다른 예술분야와 비교해 대중 전파력에 있어 월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에 성립이 못했던 채내하, 김태홍 등의 작품들과 새로 발굴되는 작품, 새로 쓰여지는 작품들을 정리해서 9월, 10월을 계속 퍼널 작업입니다”라며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술가의 집념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아마 평생을 통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 같다. 불교학곡이라는 장르가 영원한 것처럼...
(조승수 기자)

“이 회독집이 각 사찰의 인도회나 대학의 불교학부 등에 보급되어 타 종교의 성구와 같이 우리 불교도 ‘법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불교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터

사찰내 대중위한 문화사업 필요

실제로 불교학곡선집 전8권은 각 권당 4백50여 페이지로 총73책종이 수록 돼있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는 20여년 전 불교학곡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번 회독집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920년대 말부터 유치진의 ‘마의태자’, 서정주의 ‘영원의 미소’를 비롯해 신문

불교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터

사찰내 대중위한 문화사업 필요

그는 “이 회독집이 각 사찰의 인도회나 대학의 불교학부 등에 보급되어 타 종교의 성구와 같이 우리 불교도 ‘법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A large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group of people in various costumes (a monk, a woman in a dress, a man in a suit, a man in a hat, a man in a military-style uniform, a man in a winter coat) standing in a line. They are all looking towards the right. The scene is set in a simple, sketchy style. The cartoon is part of a language learning advertisement.

파고다외국어학원 종로 : 274-4000 강남 : 515-4020

기획취재 경주캠퍼스 하숙 - 자취 방값 실태

담합이상으로 학생부담가중

수요 못따르는 공급...시설개선 외면도 문제

경주캠퍼스 주변 자취, 하숙 방값이 올해에도 5~10만원씩 올라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주변의 이들 방들은 별 다른 시설보수나 위생상태 개선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올해 저자취'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의 성진동, 석강, 금강동은 반값을 통해 담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동의 한 하숙집 주인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방값을 내리고 싶어도 내기가 내리면 다른 주위 사람들에 눈총을 받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실로했다.

각 학회와 함께 실태를 조사한 학자부위위원회 백우진위원장(무역3)은 "성진동 방값을 10~20만원씩 올려받은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횡포"라며 총학생회와 경주시, 성진동장동장과 학교 주변 물가인상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일반학우들에게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학교 주변 방값을 살펴보면 우리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은 성진동 방이 전체 2천~2천5백만원, 기

름보리리,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방은 80~90만원, 학교에서 가까운 석강, 금강은 기름보리리 방1개가 70~80만원, 학교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황남동이나 동천동은 방1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이 60~70만원 정도이다. 또 아파트집집주인 황성동은 전체 2천4백만원이 평균가격이다.

학생들이 성진동, 금강, 석강 등에 밀집하는것은 기타지역들보다 우선 교통이 불편해 학교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방값이 비싸더라도 학교주변을 선호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매년 5~10만원씩 오르는 방값에 비해 주변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낙후된 점이다.

1가구에 보통 5~6명의 자취생이 있는데 화장실은 재래화장실 1개뿐이거나 석강이나 금강은 마을주변에 전혀 문화시설이 없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중 자취에서 불행이 가능한 학생은 1구, 포항, 울산 등 통학시간이 1~2시간이상 걸리는 학생들을 포함하더라도 40%안팎밖에 안돼 총 7천 여명의 재학생들중 3~4천 여명은 자취내지 하숙을 해야한다.

특히 한국관광대, 경주 전문대 학생들까지 경주시민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수요에 따른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해 해마다 방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 주변과 환경이 비슷한 2캠퍼스 중 상영대 전인캠퍼스나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아주대 수원캠퍼스 등의 방값은 월세 7~10만원 정도로 방값기간에는 방값개선이 안되는데 비해 우리학교 주변은 방값을 포함한 10달기준으로 한꺼번에 방값을 지불하는 형식이 되어 부담이 크다.

이에 총학생회(회장=전준근·철학3)에서는 가정 '물가조정위원회'를 인복위, 타학성기구들과 협의, 구성해 지속적으로 타대학 주변 물가조사를 통해 성진동 및 학교주변 물가인하로 학우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열중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학생의 11%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는 있으나 타대학에 비해 외지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숙사의 증축과 현재 교직원들의 출퇴근에 차를 통해 학생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되 기존 40인, 41인 두노선으로 한정되어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시내버스업체들과 협의, 성진동, 황남동 등 한정된 지역에서 벗어나 시외까지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학생들의 노력에 발맞춰 학교당국에서도 학교주변의 물가인상과 관련, 경주시나 학교주변 주민들과 협의,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스포츠비 증차,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등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할것이다.

(취재부)

▲채택수(선학) = 대한불교 계미총회원 기념행사인 선학제미나 참가자 지난 12월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체류.

▲홍기삼(국어국문학) = 일본 동경대에서 비교문화연구원 조교수로 도임, 지난 21일 '삼국유사'에 '향사' 관련 실험연구 논문 발표.

▲김태홍(무역학) = 소련 연해주 및 중국 동북3성, 두만강 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학술토론회 연구자료 수집차 오는 10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한국 동북아경제연구회 일원으로 참가.

▲윤종만(회계학) = 지난 12월7일 제11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서 취임.

▲안사명(정보관리학) =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미국 IBM Watson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제2차 국제인공지능학술대회' 참석차 미국체류.

▲조병찬(농업경제학) = 지난 12월14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8대 회장에 선임.

▲홍윤식(역사교육) = 지난 12월10일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가 주최한 제38회 강연회에서 '고대 일본불교에 있어서의 한국불교의 역할'을 강연.

▲김홍우(언어교육학) =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동남아 보르네오, 말리섬등지로 인문학 및 국자료 수집차 출국.

▲최상영(경주회계학) = 오는 1월 7일부터 2월6일까지 해외 학술연구차 오스트리아에 체류.

교수동정

▲노조 '송년의 밤' = 서울캠퍼스 직인노조(위원장=이진배·경상대 교학계3)는 지난달 20일 오후6시 압구정동 블루베리식당에서 60여명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1년 송년의 밤'을 가졌다.

총학 - 총대 집행부 인선

사업의 원활한 진행위해 기구 개편도

경주캠퍼스 제9대 총학생회(회장=전준근·철학3)가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92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9대 총학생회의 집행부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2위원회, 10부의 부서체제에서 4위원회 8국체제로 전환, 부서간의 사업체계가 에매함을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로 하였다.

담당부서별인선은 재정국(기존-총무부) = 오승현(의예2), 정치투쟁위원회(기존-사회부) = 김병석(중문2), 정책위원회(기존-기획부) = 송기원(철학4), 학술진흥국(기존-학술부) = 김원경(일문3), 선전국(기존-홍보부) = 남지연(국사2), 김수정(국사2), 연대사업국 = 권용수(철학4), 체육국 = 이동욱(조경3), 학원지주회투쟁위원회 = 백우진(무역3), 교과과정위원회 = 정은정(법학3), 취업진로대책국 = 이원학(법학3) 등이며 문화국과 종교국은 아직 미정이며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9대 총대의원회(의장 = 정연환·행정3)도 집행부 구성을 끝마쳤다.

집행부 인선을 살펴보면 사무국장 = 손영진(행정3), 감사국장 = 정은정(행정3), 선전국장 = 조미경(고미사3), 사무실장 = 최환호(행정1), 감사실장 = 이원학(경영·의1), 선전실장 = 정승원(정보관리1) 등이었다.

보건실 이용률 줄어

경주캠퍼스 보건실(실장=최익환·의학)의 91년 이용률이 90년에 비해 약 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실측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2학기 이용률(이용인원)은 1천5백5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8백명보다 줄었으며 이는 보건의료의 발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자별 이용률은 재학생이 80~90% 교직원 10~20%의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사용환약의 종류는 환원제에는 감기약, 체육행사기간동안에는 항생제, 데스락, 위장약, 소화제, 평상시에는 두통약, 진통제, 위장약, 소화제, 저사제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의료는 약국이 아닌 응급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회 L·T 열려

92년도 경주캠퍼스 학생자치기구 신·구 집행부 L·T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지리산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L·T에서는 91년 학생회 사업 평가와 92년 경주캠퍼스 학생회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학생회간의 연대투쟁 문맹도 논의되었다.

또한 경주캠퍼스 신·구 총학생회 L·T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한의대 졸업생 장학금 기탁

매년 4백만원씩 재학생에 지급

한의과대학 회교출신 졸업생 모임인 "동국회교 한의사회"(회장=이승하·85·한의과출)의 간부들이 지난달 15일 신현재 부총장을 방문하고 장학기탁금 증서를 전달했다.

이회장은 이 자리에서 매년 4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속서를 전달하며 "이 장학금은 우선 의부장학금이

부족한 한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고(매학기 2명에게 100만원씩 지급) 별도의 장학기탁금이 마련되면 전교생에게 수혜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회는 지난 2학기초 본교 한의학연구소에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경주총대 위상 재정립 시급

학생회 견제기능 강화 요구돼

6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인선된 복지위원회의 자치기구 승격 통과, 2학기의 총대의원회 회의 '햇볕'발간 및 3/4분기, 4/4분기 투자에 감사의 무산, 10월말부터 전학생기구 선거관리 외에는 사무이 전 부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매년 감사 때마다 감사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사가 연기되고 있으나 총대의원회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송기원 총대부의장은 "총대의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기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에 대한 인신부부 바뀌어야 한다. 총대의원회 회 정기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하는데 이제 정칙적으로 전체 학생기구들과의 연대투쟁을 함으로써 총대의원회가 무조건 학생자치기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회들과 사업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의원들의 대의원회에 대한 인식부족도 큰 문제이며, 총대의원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정기 총회의 정족수를 기존의

등록금 예고제 실시 불투명

부정적 견해속에 93년 이후 구체화

등록금 4년 예고제에 대해 사립대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예고제 시행여부는 93년 이후에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온양 그랜드파크에서 열린 '전국 사립대학 재정실무자 연수회'에 참석한 각 사립대학 재정실무자들은 "현재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책정 작업만도 열악한데 '4년 예고제'는 등록금 인상을 예측하는데 무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등록금 4년 예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대학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등록금 예고제에 관한 교육부 지침이 발송된 이후 예고제 시행을 검토하는 기간이 짧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올해 후기대학이나 전기대학의 경우에도 93년 신입생부터 적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임금인상등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불안정한 가운데 '93년 이후에나 구체화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인복위 김상규군 당선

학우들 복지위해 노력

경주캠퍼스 제2대 인복복지위원회 정·부 위원장 선거가 지난 11월29일 오후5시 인복위사무실에서 실시돼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상규(조경3), 이대훈(무역3)이 당선되었다.

지난해 6월10일 총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학생회의에 따라 간접선거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김·이씨는 당선소감을 통해 "내년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내 구성구석 여러부분까지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과학관 7% 진척

경주캠퍼스 기초과학관 공사가 지난해 10월1일 착공, 구급 15일 현재 약 7%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은 총 건평수 2천2백60평에 39억9천8백66만원의 공사금액이 소요 되는데 오는 93년 3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있다.



林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는 연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칼자국이 숲속의 친구들이 노래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부들부들 사사나무 떨어뜨리는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그루씩 한그루씩 나무들은 베어지고 숲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땅에서 뿌리뿔고, 학살 당하고, 고통받고 말았으니, 나무들과 아름다운 친구들은 사랑들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부터 훼손된 숲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의 꿈과 희망은 우리를 사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이나마요.

숲속의 전망회로 초대합니다.

숲속에는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묘한 숨결이 숲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 떨어 내리사서 정경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복한 숲살이,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를 우리들 매혹합니다. 숲과 오묘한 분위기와 숨겨진 밤새...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망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건강할 체구에 큰키, 뿌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마음놓고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인이 되어, 맑은 공기의 수호선이 됩시다! 나무들은 수천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사구를 지탱해 주는 바깥쪽입니다. 나무가 많아야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리모두 자라나는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울창한 숲을 물려줍시다. 유한킴벌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가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 자원 조성기금으로 12억 여원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탁하여 조원, 유림사업 및 산림재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57만 그루를 심고 가꾸어 산림자원 조성기금 2억여원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지원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루 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15만원의 한가정 한루 나무심기운동은 매년마다 개최, 나무 사랑을 널리 일깨워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내 일간학교에서 여교생 100명과 함께 "자연은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지킴입니다"라는 주제로 제3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린캠프가 열렸습니다.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3

등록금 18~20%인상 확실히 될듯

조속 결정돼야 학사운영 지장없어 총학측 학문의 자유등 학원 민주화에 초점

92년 분교 등록금 인상률은 19% 선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5면)
이에 대해 총학측은 연차제를 적용한 인상, 재단전입금 등 재원확보, 학내 재원분배의 학생참여 등을 골자로 등록금 협상을 준비하고 있어 새학기에 학교당국과 학생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실은 지난달 25일 9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19%로 확정, 발표했고 대학원등록금은 20% 인상, 고지했다.
이로써 입학금이 5만원 인상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21만5천원, 이학·체육계열이 24만1천2백원, 공학·예능계열이 26만7천5백원씩 인상됐다.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불가상승률 13%, 올해 노조임

금인상률 10%이상 등을 등록금인상요인으로 들면서 "새학생 등록금 인상률도 신입생수준이 적정선인 것"이라고 밝혀 재학생 등록금 인상이 19%선에서 결정될 것을 시사했다.
또 경인지역 사립대학기획실장협의회는 지난달 12일 '92년 등록금 인상률은 16%~20%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고려대등 재정지원이 양호한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서울 시내 대부분의 사립

대가 신입생 인상을 평균 18%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고보조, 재단전입금지원이 취약한 대부분 사립대학이 '현상유지'차원의 학교운영에 18%이상과 인상은 최소한의 긴급운영이라는게 기획조정실의 분석이다.
그러나 학생회는 등록금부채소위원회에서 자체분석한 인상률적정선을 학교측에 제시하는 한편, 학내 재원분배 개선은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인상률은 새학기가 지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부터 타대학 자료수집, 등록금부채의 내용과 원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회는 1월 중순부터 학교측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24대 총학생회장 이광집(전기공3)은 등록금부채의 의미에 대해 "몇 % 인상이냐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원민주화를 쟁취하고 이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등록금 4년예고제, 기여입학제등 반교육제도 실시여부와 등록금운영위원회(가칭)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 등록금 협상을 통한 학사행정의 학생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학생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편 올해 총선과 경제위기



지난 12월 24일 자신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한 수험생의 표정은 밝기만하다. 이제 당당한 동국인이 된 것이다.

신입생 등록금 20% 인상확정에 반발 대학원학생회서 예산안 공개 촉구

제8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 석사2)는 신입생 등록금 20%인상 확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부서별 조직체계 정비 등을 위한 임원회의를 지난 22일 오후 5시 학생회실에서 가졌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신입생등록금 20%인상이 타학교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 전국대학

원대표자협의회와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13일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학생회장은 "이달 안에 있을 학교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안 공개등 20%인상에 따른 근거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학생들을 등록금부채에 동참시키기 위해 학생회의 임무와 사업내용을 담은 인사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2년도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20%인상확정안과 관련, 예산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부분은 확정된 방침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인상부채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대표자협의회와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13일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학생회장은 "이달 안에 있을 학교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안 공개등 20%인상에 따른 근거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학생들을 등록금부채에 동참시키기 위해 학생회의 임무와 사업내용을 담은 인사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2년도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20%인상확정안과 관련, 예산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부분은 확정된 방침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인상부채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 5백만원 모금 농경과 동창회 재학생 후배위해

농대과 농업경제학과 총동창회는 지난달 12일 동문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동창회를 갖고 학과발전 장학기금으로 5백여만원을 모금했다.
이날 총동창회자리에서는 임원회 비롯한 교문·이사진을 구성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동창회장=유종희(65년졸) △부회장=손학중(68년

졸), 이진우(69년 졸), 유덕기(75년 졸)등이며 교문으로 제희 졸업생전원과 1회 동창회장인 장화순동문을 수석교원으로 추대했다.
한편 동창회발전을 위해 양재형(65년 졸), 손학중동문이 각각 1백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고 측석우가 3백여만원이 모금됐다.

농대과 농업경제학과 총동창회는 지난달 12일 동문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동창회를 갖고 학과발전 장학기금으로 5백여만원을 모금했다.
이날 총동창회자리에서는 임원회 비롯한 교문·이사진을 구성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동창회장=유종희(65년졸) △부회장=손학중(68년

성적우수 장학금 5백10명에 10억지출 장학제도 재검토와 재원마련책 시급

대학입학성적우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부여해 온 본교의 경우, 이번 학력고사가 지난해와는 달리 쉽게 출제돼 장학금을 지급해야할 고득점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신입생 장학금으로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4년간 계산하면 40억원의 재원지출부담을 가지게돼 재원마련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92학년도 입시성적에 따른 신입생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난해 총14명에 국한되었던것이 올해에는 서울소재 대학이 있어 장학금 협상을 통한 학사행정의 학생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학생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편 올해 총선과 경제위기

별장학금등을 지급받았다. 매년 성적우수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본교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금, 장학금액에 대폭 인상을 하는 한편, 신입생을 위한 특별장학을 신설한다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본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중앙권립 사립대학에서는 기폭이나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입시요강을 통한 각종 장학특전을 약속, 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당국은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강구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오후2시 임시교무위원회는 긴급히 열고 92학년도 후반기의 경우 또 다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을 감안, 입시성적 3백점이 상 고득점자에 한해 '92년 후기특별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1년간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현장학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효과가 크게 나타나자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입시성적 우수장학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재원마련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본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부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입학장학금 폐지방안 및 장학금지급규정은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환 기자)

학복위 일상사업 설문조사 식당적용후 식사양질 향상 53.6%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평가점수 B평점을 얻었다.
학복위 적용사업 및 일상사업 등에 대한 설문으로 학생들에게 총 1천부를 배포, 5백95부를 회수(회수율 59.5%)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식당적용제에 대해 긍정적 5백14명(86.4%), △식당적용후 식사의 양질이 좋아졌다 3백19명(53.6%), △식당 이용에서 개선사항은 점수 위생 2백89명(48.6%), △조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품질이 낮다 4백79명(80.5%), △조리관 시 손질은 현행대로 좋다 3백10명(52.1%), △식당 이용한 적이 없다 4백63명(77.8%), 건설해야 한다 5백24명(88.1%),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은 전자매장 1백92명(32.3%), △한방(침술)특강을 실시한다면 수강하겠다 3백

14명(52.8%), △우정장학금사업에 대해 현행대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다 2백82명(47.4%), △생활문화운동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생활화시켜야 한다 2백55명(42.9%)
이에 학복위는 올해부터 식사 절감식, 식단 다양화, 식당 위생, 낡은 커피자판기와 복사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복지매장건설의 경우 2월말 다량관 지하 계약만료시 학교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수배자를 위한 '하루차집'

이 있었다.
한편 본교 수배자는 제23대 정·부회장이 정우식(철학4), 신원섭(경제4)등을 비롯한 20여명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집 수익금인 40여만원은 회의를 거쳐 구제책 사용방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학집행부 구성
제24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월 5일 집행부를 구성, 발표했다.
제24대 총학 집행부를 보면 △총무부장=이철호(철학3) △기획부장=김태길(국문4) △사회부장=최화림(교육3) △연대사업부장=최성준(경제4) △문화부장=맹계경(독문4) △학술부장=최남일(역교3) △체육부장=임승희(체교3) △신선부장=손유나(독문2) △산문부장=공미선(철학2) △편집부장=이미지(사회3) △역사위원장=손주연(교육3) △학생복지위원장=한승우(야간 경제학) △승강교과과정학위위원장=구본원(법3) 등이다.

재단 커트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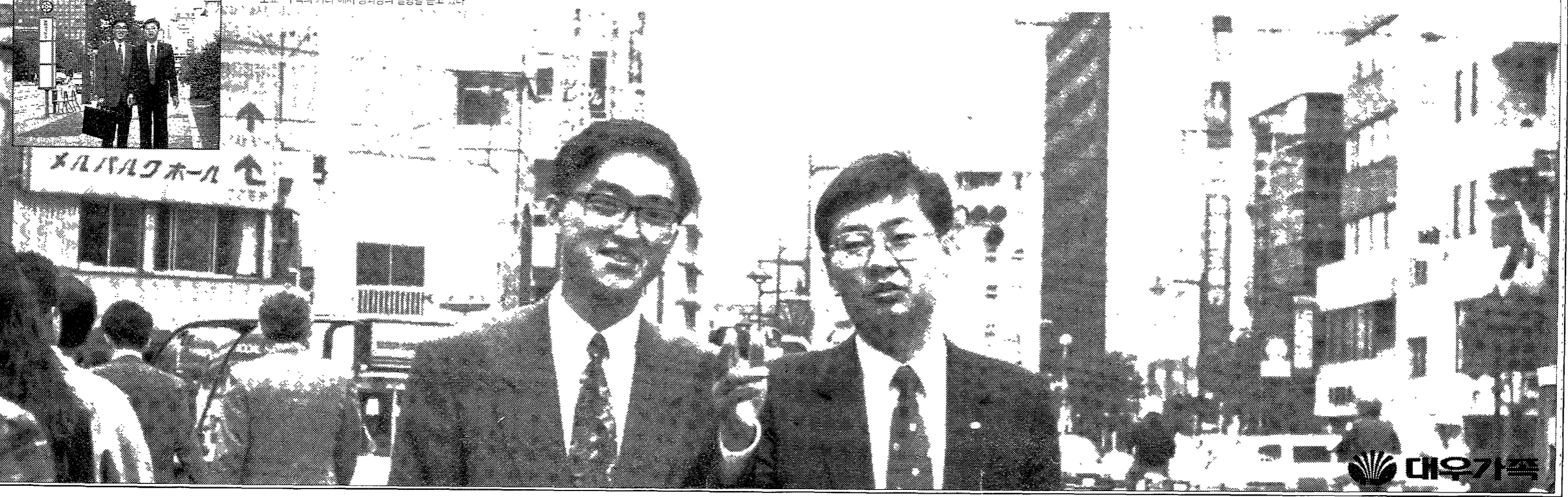
○'9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 본교 커트라인 평균이 25점이니 향상된 가운데 재단 커트라인(?)도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매년 일부의 전입금만 내고서 사립대학교비를 등에 업고 신규교수 채용을 비롯, 본교 학사행정을 감독하는 재단에 거는 기대가 적지않다는 주장은 그 것들이라고 하는데, 학교재정참여에 명실상부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재단에게 최 회장부터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려면 재단 커트라인은 1백점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정한 E·T
○'예로부터 평화롭기로

전문인력 대량생산화

○'교육부가 지난12월 20일 '전국 모든 대학을 공' 나용학교(?)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제7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해 학생을 뒀고 있다는 데.
95년까지 이공계대학 정원을 1만6천명 늘리겠다는 것과 각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자율화시키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그 내용으로 이는 학교재정 기반이 약한 사립대학이 다후이 수입원인 학생수를 늘릴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이에 본 회장부터 "전문 인력양산도 좋지만 교육환경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가는 뜻은..."

“선배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배님 활약상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지만 막상 와 보니 정말 굉장하네요. 신입사원으로서의 감히 엄두도 못낼 만큼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중심무대 마한가지 아니냐. 그런데 잘, 금년 인턴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했잖나.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우인이 된 소감이 어떨까?”
“실습기간 동안 선직업무에 맡겼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일에 대한 열정과 희생의 가치관이 왜 필요한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기도 하구요. 역시 대우에 입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일하다보면 더욱 그렇지. 더구나 일본같은 나라의 경쟁하네는 대우 특유의 창조와 도전정신 없이는 힘들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실각무류, 현지투자 등을



◀ 뒤로 일본 경제의 성장인 국제무역센터와 도쿄타워가 보인다
▶ 대우저렴 청라빌딩 정병국 과장과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영민 과장으로 무역의 거리에서 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우가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면서 당당히 국제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세계 64개국 84개 해외지사에서 선배님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세계 속의 대우가 아니라 세계가 곧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앞으로 선배님 못지않은 국제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와 같은 활기찬 후배사원을 만나게 돼서 마음 든든하네. 우리 함께 국제화의 길을 넓혀 보자구.”
오늘도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국제화의 주역들. 그리고 맑은 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현실에 걸맞지 않는 미국식 구멍가게

24시간 영업의 '편의점' 얼마나 편리한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슈퍼마켓과 별 차이점이 없고 외국자본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립시다”
 “24시간 영업”을 특징으로 하는 편의점이 89년 5월 국내에 도입된 후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2백 5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 특히 대학가, 아파트촌에서는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동행에 갖은 점을 고려한 위치전략(?)이라 하겠다.
 현재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써클 K, 로손, 미니스톱, 패밀리마트 등 외국계 편의점과 최근 LG윙풍, 동양마트 등 대기업들이 독자개발한 LG25, 바이더웨이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편의점들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있도록 눈길을 끌었다”라며 기존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분위기 연출의 이점을 말한다.
 한편, 중앙경제정책연구소의 ‘편의점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은 주부보다 학생, 회사원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편의점들이 대학가,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의점이 아직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처럼 일상적인 장소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본교 주변에도 하루가 다르게 자리잡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또 생겼네”라는 인식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이용자의 경우도 호기심에서 한번 둘러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 범죄의 위험 가능성, 외래문화 침투의 현장, 무엇보다도 의외로 대자본에 의한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의 존재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해결을 담보로 할 때 진정한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밤11시~7시 이용률 30%...본래 취지 못살려

급속한 확대로 기존 구멍가게·슈퍼마켓 존재 위협

류 등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본교 근처에 위치한 바이더웨이 매장의 경영책임원은 “특히 매장의 깨끗한 분위기와, 앞서 먹을 수 있게 마련된 탁자와 의자는 지나가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본교 주변에도 하루가 다르게 자리잡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또 생겼네”라는 인식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이용자의 경우도 호기심에서 한번 둘러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 범죄의 위험 가능성, 외래문화 침투의 현장, 무엇보다도 의외로 대자본에 의한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의 존재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해결을 담보로 할 때 진정한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젠 더높이 날기위한 날개짓을...

‘수습’을 마감하며

“로마의 휴일”을 처음 본 순간 그 레고리 백은 나의 우상이었다. 공주와 멋진 사랑, 난 ‘멋있다’라는 감탄사만 절세없이 연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은 이후 신문사라는 보금자리를 찾게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수습시절은 기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무참하게 구겨버렸다. 무엇을 취재할지도 모르는 채 출입처를 뛰어들었고 고민있는 기사보다는 형식적인 1단기사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결국 신문사생활에 지쳐버렸고 신문사에 몸담은 시간에 대한 회의만 가득했다.



박 기 철 기자

남만적 기자가 아닌 독재의 억압과 착취의 판을 깨는 현실타파의 주역인 ‘새독이’로 다시 살아 숨쉬려다.

억압과 착취의 판을 깨고 현실타파의 주역인 ‘새독이’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는 새는 깃테기를 벗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깃테기를 벗기 위해서는 수없이 깨지는 아픔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편협한 시각과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지난날의 과오는 갈아엎어야 한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 가슴속에 ‘사표’만 쌓았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갈 길은 멀다. ‘외사의 실수’는 한사람을 죽이지만, 기자의 실수는 수천만명을 죽일 수있다’는 신조가 내뿜는 모습을 끊임없이 체적할 것이다.
 새독이! 새독이는 지금 불끈번 이 팬데워에 있다.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 노릇인가?’라는 자문과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막하기 그지 없는 자위나 자신을 달랬었다.



조 용 수 기자

‘신문’을 가장 강력한 나의 무기로 삼아 타성에 빠지지 않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리라.

그러한 생활들은 자연히 자신을 어필수 없는 수습으로 구속시키고 신문사내의 생활들을 타성에 젖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한국원’씨 충가사상을 취재하기 위해 밤을 새고, 각종 가두 투쟁을 좇아 다니면서 여타 언론사 기자들과의 접촉을 갖게 됐다. 그러한 경험들은 나 스스로를 그들에게 뒤질수 없는 대학 언론인으로의 위치에 올르게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갖게했다.

말 수습이라는 시점에서 나 자신이 뭔가 새롭게 변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때까지의 타성에 젖었던 모습에서 또다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또 이전에 보여왔던 나태함을 일소시키는 변화를 스스로 가져야겠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식민지 조국에 대한 ‘애국’의 하나라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문만드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화동임을 믿고 또 믿는다.
 (예수대 미술학과)

‘손짓사랑’으로 드리는 새해인사

손가락번호 5 4 3 2 1

1 새해 2 복 3 많이 4 받기를 5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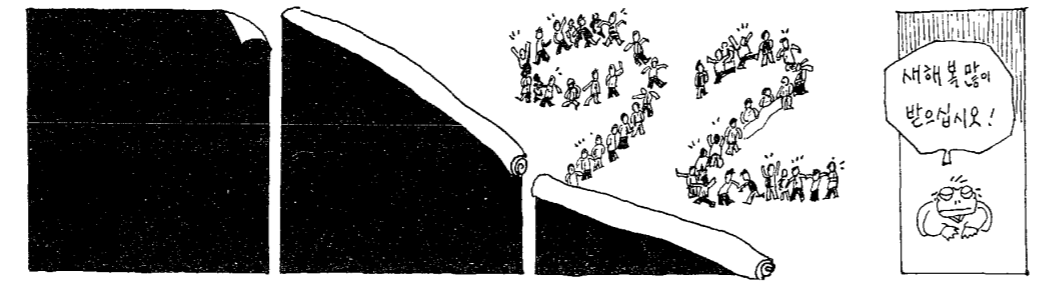
◇양손 앞에서 공을 쥐듯한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편후(새롭다) 양손①②를 L자로 마주해서 위로 올린다(날).

◇손으로 턱을 쓰다듬는다.

◇가슴앞에서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손을 폼다가 주먹을 쥐다.

◇양손을 포개후 가슴앞에서 안쪽으로 당긴다.

◇오른손 ① ②로 목중앙을 살짝 쥐었다 앞으로 내밀며 ①②를 모은다.



어디든가 훌쩍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도피처라고 여긴 20여일간의 해방(?)마저도 해방이던 것은 수면으로 나를 몰아부쳤다. 기울어진 술잔속에서 서서히 나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신문사를 그만두는 것은 나에 대한 패배이고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선배 영령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 ‘새독이’-좌절과 절망을 깨는 현실타파의 개혁-가 바로 수평에서 날 구해준 은인이었다. 그렇다. 내가 가슴속에 그레고리 백같은 남만적인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독재의

넌 명작과 비할때 모양새는 보잘 것 없다. 그렇지만 짧은 글 몇몇을 먼저 장재주를 부려 온갖 현란한 단어들로 포장했던 기자에게선 신씨의 똥종이에 쓴 수기함에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지 않을수 없었다. 더욱이 기자의 글은 언론이란 이름으로 대단한 파급력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큰 책임을 안아야했다. ▲우리신문도

작은 항변

요몇년동안 황해도교수평화사건에서 23대총학생회, 불교아동학과문제, 재단이사장관련 성명서에 이르기까지 여러기사에서 마찰을 빚어왔던 경향이 있다. 또 이러한 독자와의 만남에서 오가는 질책과 충고에 우리신문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에이즈바이러스가 확산, 춘지수수파문, 시국사건의 왜곡등

기성언론의 행태는 순수하고 건장한 글을 실으려는 대학신문의 자기역할을 명백히 해주는 계기로 학생기자들은 받아들였다. 이런 우리신문-강강호(1089)에 실린 총학의 광고를 모처에서 문체상문으로 책임자가 사표를 내는 일로까지 비화했다. 그들의 권위적인 발상과 태도에 참으로 당혹이 마힐뿐이다. ▲신씨가 ‘靑丘송추역’마지막에 중앙정보부 심문을 받으며 靑丘송추와 靑脈社(통혁당사건관련 잡지사)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에 가공할 정치권력의 역사적 복수에 서오공의 불질을 산책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똥종이에 쓰여진 진실된 삶의 이야기앞에 머리 조여진 기자에게 던져진 모자의 책임추궁은 슬픈 밤을 지새며 신문에 몰두했던 지난밤들의 외로움을 충동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哲)

SAM YANG GROUP

제2회 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수상작 발표

대학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아래 실시한 제2회 「대학생 논문현상공모」의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상업탐색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학문을 생생한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기업활동의 올바른 표류를 설정해 나가기 위한 이 행사가 명실공히 산학협동의 한마당으로서 그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7년간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면서 건설적 성장한 저희 삼양사는 여러분들의 패기와 이상을 뜨겁게 꺼안으면서 창조적 혁신경영, 행복한 생활의 지향, 풍요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상구분	수 상 자	논 제	상 금
최우수상	김 영 찬 (서강대학원경영학과 3학기)	유통산업개방에 따른 국내제조업의 대응방안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조 영 호 (성균관대 행정학과 3년)	고임금시대 기업의 대응방안	상금 80만원 및 상패
우수상	유 창 환 (고려대학원경영학과 2학기)	소비자 Needs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상금 80만원 및 상패
	신 근 호 (강원대 농화학과 4년)	유통산업개방에 따른 국내제조업의 대응방안	상금 50만원 및 상패
가 작	한 종 극 (연세대학원심리학과 3학기)	정년퇴직자의 기업체 활용방안	상금 50만원 및 상패
	김 진 우 (동국대학원법학과 2학기)	소비자 Needs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상금 50만원 및 상패

●논문심사위원 ● 신유근 교수(서울대학교), 박경규 교수(서강대학교), 손태원 교수(한양대학교)

삼양사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디원살과피이버 ●양영희 ●수당정화학회